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 논문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한국화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도내 미술교사 및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오 연 순

2011년 8월

#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한국화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

-제주도내 미술교사 및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

지도교수 강 동 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오연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 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8월

<초록>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한국화 인지도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도내 미술교사 및 중학교 2학년 학생 대상-

오 연 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강 동 언

우리의 전통회화는 예로부터 독창적으로 계승·발전하여 온 문화유산이다.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중학교 미술교육과정에서 편성, 운영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민족의 뿌리를 알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아정체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라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우리의 문화를 주체적으로 선택,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국제적 인간형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세계의 다양한 예술문화의 특성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우리 전통회화도 세계화의 흐름 속에 고유의 특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우리 전통 미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 과밀학급, 한국화 전공교사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전통 미술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서양 미술 교육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재료 사용의 용이함으로 현재 미술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학습형태는 학생들에게 전통 미술에 대해 접할 기회를 부족하게 하였고 그 결과 전통회화를 낯설어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고유의 정체성을 되찾고, 학생들에게 한국화에 대해 친숙함을 느낄 수 있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화 지도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기에 이를 모색해 보고자 제주도내에서 근무하는 미술교사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화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 결과 교사들의 느끼는 한국화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부족과 학생들의 수업준비 상태 미비(45%) 때문에 한국화 실기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기 수업 시 한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학

생 수가 너무 많아(45%) 실기 지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현재 교과서 내용상 기초적인 표현기법이나 구체적인 제작과정에 관한 내용의 부족으로 수업시간에 교과서는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것(45%)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한국화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첫째, 평소 자주 접할 기회가 적어 다른 영역에 비해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는 매우 낮고(5.3%), 둘째, 한국화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거의 없어(67%), 학생들의 한국화 전반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한국화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화 지도에 필요한 준비물 및 용구 등 제반 시설확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고, 교과서의 내용 중 기초적인 표현기법이나 제작과정을 보다 폭넓게 수록하여 교사 및 학생들이 교과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재료와 함께 현대적인 다양한 재료 활용으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학생 수를 조정하여 충분한 실기 지도 수업이 진행되도록 여건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와 미술에 대한 우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고 다양한 재료 활용과 기법을 통한 수업으로 한국화의 정신성과 그 배경사상을 이해하여 우리 전통미술에 대한 인식을 보다 심도있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전통 미술을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고 공감하도록 교육하면 우리 민족만이 간직한 고유한 문화가 더욱 계승·발전 되고, 그 가치를 알고 전통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2011년 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
II. 미술교육의 이론적 배경 .....	4
1. 미술교육의 개념 및 목적 .....	4
2.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	6
3. 제7차 교육과정과 한국화 교육의 필요성 .....	10
III. 한국화 교육의 인지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13
1. 미술교사에 대한 한국화 교육의 실태조사 .....	13
2. 한국화 학습에 대한 인지도 실태조사 .....	23
3. 설문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	57
IV.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	61
1.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 .....	61
2. 한국화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	62
V. 결론 .....	64
참고문헌 .....	66
ABSTRACT .....	68
부록(설문지) .....	70

## 표 목 차

<표 1> 제주도내 미술교사 응답자의 실태 .....	14
<표 2> 미술실 현황 .....	15
<표 3>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수업 실태1 .....	16
<표 4>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수업 실태2 .....	18
<표 5> 한국화 교육의 인지도 .....	19
<표 6> 한국화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
<표 7> 보유하고 있는 용구 .....	21
<표 8> 바람직한 한국화 교수 학습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 .....	22
<표 9> 제주도 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응답자 실태 .....	23
<표 10> 미술에 대한 흥미도 .....	24
<표 11> 흥미와 관심이 있는 영역 .....	25
<표 12> 한국화에 대한 흥미가 없는 이유 .....	26
<표 13> 지금까지 전시회 관람횟수 .....	28
<표 14> 7번관련 그 중 한국화 전시회 관람횟수 .....	29
<표 15> 한국화 실기수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용구 준비 .....	30
<표 16> 한국화 영역 중 관심있는 분야 .....	31
<표 17> 한국화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배운 경험 .....	32
<표 18> 실기 수업 시 배운 한국화의 종류 .....	33
<표 19> 한국화 실기 수업 방법 .....	34
<표 20> 실기 수업 시 준비물 준비 상태와 작품에 임하는 태도 .....	36
<표 21> 지금까지 한국화를 그려 본 경험 .....	38
<표 22> 지난 1년간 한국화 그린 횟수 .....	39
<표 23>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국화 수업을 한다면 .....	40
<표 24> 실기와 이론 중 재미있는 수업- .....	41
<표 25> 교과서 내용 중 한국화 영역의 분량 .....	42
<표 26> 수업 시 교과서 내용의 도움 정도 .....	43
<표 27> 한국화 대한 인지도 .....	44

<표 28> 한국화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정도 .....	45
<표 29> 농담 표현 방법을 알고 있는 정도 .....	46
<표 30> 표현 기법을 알고 있는 정도 .....	47
<표 31> 민화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	48
<표 32> 조선시대 3월에 대한 인식여부 .....	49
<표 33> 한국화 그리기 수업 시 곤란한 점 .....	50
<표 34> 한국화 그리기의 자신감 .....	51
<표 35> 한국화 그리기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 .....	52
<표 36> 흥미향상을 위해 수업 시 선생님께 바라는 점 .....	54
<표 37> 효과적인 한국화 학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5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 경제면에서 많은 성장을 하였으며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후기 산업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독자적인 고유성을 지니면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 미술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통 미술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온 미술양식과 미의식을 통틀어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전통 예술을 토대로 삼고 있는 문화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교육과정은 한국인의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전통 미술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통 미술 교육을 중시하기보다 오히려 서양 미술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서구 지향적 교육이 한국 문화의 독특한 주체성을 상실하게 하며, 우리의 전통미술을 주변 문화로 만들게 하며, 서양미술 위주의 편향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지금,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지니면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통 미술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여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도방법을 강조하고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인의 정서가 깃든 한국화, 한국인의 그림, 민족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조형의식이 담긴 미술과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과밀학급, 한국화 전공

미술교사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 중학교에서의 전통 미술에 해당하는 한국화 교육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그 결과 전통회화인 한국화는 점점 흥미와 관심을 잃어가고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화 교육의 실태와 인지도를 조사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의 전통 미술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지니게 하여 세계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켜며 전인적인 인격의 소유자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과 범위

민족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한국적인 것’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인 중학교 시절부터 전통 미술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 긍지와 자부심을 지닌 모습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미술 교육의 이론적 배경으로 선행 연구를 통하여 미술 교육의 개념과 목적,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제7차 교육과정과 한국화 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제주도내 미술교사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인 수업 지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한국화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화의 교수·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의 시설과 교구의 준비 상태를 분석하였다.

둘째, 미술교사의 실기 지도 방법 및 한국화 수업 전반에 걸친 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인지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다.

넷째,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효과적인 한국화 수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제주시내 지역 4개 학교, 서귀포시내 지역 4개 학교, 그 외 지역 4개 학교, 총 12개 학교 400명의 학생과 도내에서 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 4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에서 학생 총 381명과 교사 20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 Ⅱ. 미술교육의 이론적 배경

### 1. 미술교육의 개념 및 목적

#### 1) 미술교육의 개념

자아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미술은 보고 느낀 것들, 또는 내면의 세계를 미적 기술을 통해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술교육이란 ‘미술’과 ‘교육’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교육적 개념으로 미술이라는 미적, 경험적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조형적, 공간적으로 표현해 내고 그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움으로써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미술교육 영역을 가리킨다.’<sup>1)</sup>

따라서, 미술교육은 두 가지 견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미술을 하나의 교과로 편성해서 가르칠 때의 명칭이므로 미술교육이라는 말은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미술교육을 의미한다. 이때의 미술교육은 교육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 중, 미술과에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행해지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미술교육은 학교 이외의 폭넓은 교육으로 사회 기관 및 기타 여러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미술을 통해 성숙된 인격을 지니도록 교육하는 것이며 미술활동으로 생활과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조형요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향유하며 미적 안목을 키우는 교육인 것이다.

일반적 미술교육에서 논의하는 미술교육은 “인격성장이 최대한으로 신장되도록 돕기 위해 인간의 내면을 시각적, 공간적,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이해하며 감상하게 하는 학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런 정의는 미술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 포함되는 관점이므로 미술실기 이

1) 김동철(2006), 「N세대의 미술교육」, 집문당, p.24.

2) 이규선 외(201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p.22~23.

외에 미술이해와 미술 감상의 측면까지 미술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 미술교육의 목적

미술은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그 표현된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여 파악하게 된다.

이른바 미술교육의 목적은 ‘첫째, ‘감성’과 ‘정서’교육이다. 아름다운 미술 작품과 미적 대상을 학생이 자주 접하게 하여 그들의 자라지 못한 정서를 순화시켜가는 것이다. 둘째, 주로 60년대에 많이 제기된 주장으로 ‘창의성’의 육성을 강조하는 견해이다. 창조적인 미술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미술을 가르침으로써 만들고 그리는 ‘조형기능’과 ‘공간기능’을 길러 준다는 전통적인 견해이다. 이 밖에도 미술에 관한 통합적인 사고와 ‘지식’을 기르는 것도 미술과 교육이 책임지는 중요한 목적이다.’<sup>3)</sup>

미술교육을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하며 그리고 타인의 관계와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 및 세계의 조류를 이해하고 이러한 미술을 통한 자기 발견과 성장은 청소년의 감성과 정서 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육이 인격 형성, 또는 전인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고 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전인이나 자아실현이라면 미술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함축하여 미적 안목을 지닌 인간이라 할 수 있다. 즉, “미적인간을 기르는데 미술교육을 통한 미적 안목의 육성, 조형 능력의 함양, 창의성의 계발, 감성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sup>4)</sup>

이런 관점에서 미술교육의 의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는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전달하는 시대가 되어 미술교육은 시각적 사고를 확장시킨다.

둘째, 좌뇌 중심의 주지교과의 불균형을 수정하면서 좌·우뇌의 균형과 조화로운 뇌의 발달을 가져온다.

3) 김춘일(2010),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p.161.

4) 이규선 외(201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47.

셋째, 미술교육은 시각적, 촉각적, 공간적 경험에 의한 질적 사고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는 미적 체험을 심화시킨다.

넷째, 미술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보다 생생하게 만들어주어 올바른 지식과 삶을 일깨우면서 생활을 활기있고 아름답게 만든다.

다섯째, 미술교육은 자유로움 속에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개성 있는 자아표현의 방법을 제시한다.

여섯째, 미술교육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특한 미의식을 계발하여 민족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이 시대에 적합한 세계화·국제화를 위해 이바지한다.

일곱째, EQ의 계발과 향상, 그리고 창조적 사고의 발현에 가능성이 높은 교과가 바로 미술 교과이다. 미술교육은 삶에 있어서 감정을 잘 조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회복시켜준다.<sup>5)</sup>

따라서, 미술교육은 일차적으로 인간교육이다.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미술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한다. 즉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한 자아를 발견하고 표현하며 타인이나 세계를 이해하여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배움의 과정인 것이다.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 뿐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성을 계발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 2.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미술과 교육과정은 1954년 처음으로 고시된 이후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 고시 되었다.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이 공시 이후 현재까지 중학교 미술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임정기 외(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pp.21~25.

### 1) 제1차 교육과정 시기(1955~1963)

이 시기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미술과의 주목표는 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기초 조형 기능을 기르는 것과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사회인으로서의 교양을 기르는데 있었다. 내용으로는 조형품의 선택 능력, 사용 능력, 창조 능력, 자연·표현·글씨의 감상 영역을 기르는 것으로 구성되었다.’<sup>6)</sup>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습관 등의 교육을 강조하고, 교육 내용도 생활 속에서 찾아내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 2) 2차 교육과정 시기(1963~1973)

2차 교육과정 시기는 경험주의 교육과정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미술 교과에서는 자기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풍요로운 인간상을 지닌 자주적 민주 시민을 양성할 수 있다는 미술교육의 이념을 도입하였다”.<sup>7)</sup> ‘군사정권 이후 1963년에 고시된 2차 교육과정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창의적 표현력, 조형의 생활 적용 태도, 조형의 용구와 재료 사용능력, 자연미·조형미의 감상 태도 등을 기를 것을 미술 교과 목표로 제시하였다.’<sup>8)</sup>

미술교육은 이 시기에서부터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서양의 미술교육 사조가 받아들여져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초단계이며 목표와 내용이 구체화되는 등 기본 틀이 형성되어 미술교육 발전이 시작될 수 있었다.

### 3) 제3차 교육과정 시기(1973~1981)

제3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 생활 중심을 교육 과정에 대한 반성으로 학문 중심교육 과정을 도입하여 한국적 미술교육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로 교과 내용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표현활동으로 강조하였다.

6) 김춘일(2010),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p.206.

7)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체육, 음악, 미술」, p.184.

8) 김춘일(2010),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p.206.

“목표상의 특징은 전통미를 재발견하고 민족 주체의식을 확립하여 조형 능력을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고자 하였다.”<sup>9)</sup>

내용체계는 2차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을 재구성한 것으로 회화, 조소, 구성,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으로 구분하였다.

#### 4) 제4차 교육과정 시기(1981~1987)

제4차 교육과정은 3차까지의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한 것이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1980년 교육개혁 조치 등의 사회적 변화와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인하여 인간소외, 비인간화, 각종 공해를 접하게 되면서 인간성 상실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지나친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학습량 과다, 교과목 위주의 분과 교육이 오히려 교육 효과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인간중심교육 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결합시켜 개정하였다.’<sup>10)</sup>

이전까지의 일본식 모방 체제를 벗어나 창의적이고 생활에 근접한 미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과 새로운 편제를 시도한 데 특징이 있으며, 그 이후로 그들이 유지되고 있다.

#### 5) 제5차 교육과정 시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의 장점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1987년 3월 개정 고시 되었다.

즉,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면서 “민주화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해 기초 교육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sup>11)</sup> 5차 교육과정은 4차 교육과정을 부분 수정하여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 6) 제6차 교육과정 시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은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 능력, 학습

9) 김삼량(1992) 「미술교육 개론」, 미진사, p.33.

10) 이규선 외(201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217.

11)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체육, 음악, 미술」, p.187.



자의 경험세계의 중시, 교육 현장과 창의성 자율성의 확대 등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정서 함양을 목표로 실생활과 미술의 연관성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며,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재료와 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 그리고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존중의 태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통 미술을 한층 더 중요시하였다.’<sup>12)</sup>

이 시기의 특징은 미술과 생활 영역을 추가하여 미술을 생활과 관련지어 미적 체험을 강조하고 감상과 표현의식을 기르자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 7) 제7차 교육과정 시기(1997~2007)

제7차 교육과정(1997~2007)은 제6차 미술과 교육 과정을 개선,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체제를 세웠다.

“미술과 교육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인적 육성의 바탕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인간, 전통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민주적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인간,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교양과 덕성을 갖추고 직업적 과업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다.”<sup>13)</sup>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학교 급별 연속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미적 체험과,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주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적 미술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감상 교육을 강화하였다.”<sup>14)</sup>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요구를 반영한 교과 내용 구성 체제와 함께 제6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였던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

#### 8) 2007 개정 교육과정

12) 김성숙 외(2009), 「미술교육의 동향과 전망」, 학지사, p.381.

13) 고승혜 외(2009), 「중학교 3학년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p.9.

14)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체육, 음악, 미술」, pp.192~193.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7차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이 미술 교과에 특성을 살려 바람직한 인간의 성장을 돕는데 있다.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학교 미술 교육의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상에 나타난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 수준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적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개정 목적을 두고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내용의 성격은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시각 이미지를 통한 미술의 의사소통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 부분을 강조하였고, 목표로는 총괄목표에서 미적 인식 능력을 강조하여 학년 군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미술교육의 정의적, 심동적, 인지적인 면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sup>15)</sup>

2007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시각문화 강조, 학년 군별 목표제시, 표현영역에 표현과정 신설, 미술을 통한 의사소통 강조, 미술교과내외의 통합적 접근, 감상 영역에 미술 문화 신설 등의 강조를 들 수 있다.

### 3. 제7차 교육과정과 한국화 교육의 필요성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 알맞은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을 목표로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하고, 내용으로는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하고, 운영 면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교육을 실천하고 제도 면에서는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sup>16)</sup>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기초하여 중학교 미술 교과 교육은 미적 감수

15)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체육, 음악, 미술」, pp.197~202.

16) 이규선 외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p.221.

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은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면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미술활동에서 심동적인 측면인 표현과 감상능력과 인지적인 측면인 창의성, 정의적인 측면인 심미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그리고 제7차 교육 과정의 특징으로 우리 전통 미술의 이해와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미술과 교육과정도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학교 급별 교육 목표에 따라 미술과의 성격을 미술문화를 이해하며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전통 미술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하부 목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술과의 하부 목표에서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미술 문화 이해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미술을 보다 강조하여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이를 기본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미술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우리미술에 접목시킴으로 새로운 미술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술교육에서 전통 미술인 한국화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조형적인 활동에서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민족의 뿌리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동시에 서구문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학생들에게 전통미의 가치를 깨닫게 함으로써 민족 주체성을 회복하는데 있다.’<sup>17)</sup>

자연과 그 대상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전해내려 오는 문인화, 산수화 등의 선비정신에서 찾아 미술 교과외의 바탕으로 삼아 한국화를 수업한다면 종이, 먹, 붓, 등의 재료만의 습득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화를 형상화하는 조형적인 활동과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해하는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화는 자연과 사회의 근본원리와 예술에 있어서 동양적인 심오함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듯 한국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생활 속

17) 손지원(2009), “표현기법을 활용한 한국화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12.

에 가까이 접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한국화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소중한 우리의 전통문화, 예술을 멀리하는 실수를 범할 것이다.

‘해방 이후 선진 문화교육을 받은 서구화된 교육 세대들이 일방적인 교육사상과 사고가 유입되어 전통문화, 예술 및 한국화 교육을 등한시 하였고 또한 독창적인 고유의 문화 의식을 심어 주지 못하였기에 한국화의 지도는 반세기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18)</sup>

우리 민족의 독특한 삶의 방식과 조형 의식이 담긴 미술 문화를 통해 우리의 독창적인 조형 의식을 회복하고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미술 교육의 과제 중 하나이다. 또한 미술 문화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넓은 안목과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화 교육은 우리의 전통미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애호하는 태도와 습관을 길러 새로운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적 의미가 있다.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문화의 지층으로 이어진 우리의 전통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에게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하며, 세계 속의 한국 미술 문화 창조의 기틀이 된다.

“전통 문화가 튼실한 뿌리를 지녀야만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문화, 정체성이 없는 전통 미술은 소멸되고”<sup>19)</sup>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질 것이다.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미술 교육은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밑바탕이 되고, 나아가 문화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 고유의 얼과 정서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결실을 맺을 것이다.

18) 김충식(2004), 「쉽고 재미있는 한국화그리기」, 학지사, p.25.

19) 김미정(2008), “중학생의 한국화에 대한 교육 실태와 수업모형”,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pp.5~7.

### Ⅲ. 한국화 교육의 인지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본 연구는 제주도내 2학년 학생들의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미술교사로 근무하는 선생님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제작, 배포하여 조사하였다.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1학년은 조금 이른감이 있고 3학년은 고입 준비로 설문지에 대한 부담을 느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화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분석하였다.

첫째, 한국화의 교수·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학교의 시설과 교구의 준비 상태를 분석한다.

둘째, 미술교사의 실기 지도 방법 및 한국화 수업전반에 걸친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인지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 개선 방안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 1. 미술교사에 대한 한국화 교육의 실태조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가지고 제주도내에서 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40명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서신 및 방문을 통하여 배포하고 그 중에서 20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의 분석은 빈도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여 처리하였다.

<표 1> 제주도내 미술교사 응답자의 실태

질문 내용	응답 자료	빈도	퍼센트
성별	남교사	4	20.0
	여교사	16	80.0
근무 학교	남자 중학교	2	10.0
	여자 중학교	1	5.0
	남녀 공학	17	85.0
근무 지역	제주시내	7	35.0
	서귀포시내	5	25.0
	그 외 지역	8	40.0
경력	1-5년	7	35.0
	16-20년	1	5.0
	21년 이상	12	60.0
전공	한국화	11	55.0
	서양화	5	25.0
	조소	1	5.0
	디자인	1	5.0
	공예	2	10.0
	합계	20	100.0

<표 1>의 응답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 여교사 80.0%, 남교사 20.0%이고, 근무학교에서는 남녀 공학이 85.0%, 남자 중학교가 10.0%, 여자 중학교가 5.0% 순이다.

근무지역을 보면 제주시내가 35.0%, 서귀포시내 25.0%, 그 외 지역이 40.0%에 해당한다. 경력에서는 21년 이상이 60.0%로 가장 높고, 1-5년이 35.0%, 16-20년이 5.0% 순이며, 전공에서는 한국화가 55.0%, 서양화가 25.0%, 공예가 10.0%, 조소와 디자인이 각각 5.0%이다.

<표 2> 미술실 현황

질문 내용	응답 자료	빈도	퍼센트
실기 수업 장소	미술실	18	90.0
	일반교실	2	10.0
미술실 크기	일반교실 크기	10	50.0
	일반교실 크기의 1배 반	4	20.0
	일반교실 크기의 2배	6	30.0
한국화 수업 시 학생들의 용구 준비 상태	양호하다	5	25.0
	보통이다	4	20.0
	미비하다	7	35.0
	아주 미비하다	4	20.0
	합계	20	100.0

<표 2>의 미술실 현황을 보면 실기 수업 장소에서 미술실이 90.0%, 일반교실이 10.0%이며, 미술실 크기에서는 일반교실 크기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교실 크기의 2배가 30.0%, 일반교실 크기의 1배 반이 20.0% 순이다.

한국화 실기 수업 시 학생들 용구 준비 상태에서는 미비하다가 35.0%, 양호하다가 25.0%, 보통이다와 아주 미비하다가 각 20.0%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국화 수업은 미술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술실 크기는 일반교실과 같은 크기이며, 학생들의 준비물 준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화 실기 수업은 준비물과 용구나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야만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수업에 필요한 용구 준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표 3>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수업 실태1

질문 내용	응답 자료	빈도	퍼센트
사용하는 교과서	지학사	7	35.0
	교학사	8	40.0
	두산	4	20.0
	기타	1	5.0
교과서 활용 정도	항상 활용한다	3	15.0
	자주 활용한다	8	40.0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9	45.0
활용되지 않는 이유	학생들 수준에 알맞지 않다	2	10.0
	제작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6	30.0
	작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2	10.0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10	50.0
비중 있게 지도하는 분야	한국화	4	20.0
	서양화	10	50.0
	디자인	5	25.0
	공예	1	5.0
연간 한국화 총 수업시간	1-2시간	4	20.0
	3-4시간	10	50.0
	5시간 이상	6	30.0
한국화 지도시간을 적게 할애하는 이유	한국화 외 다른 영역에서 지도할 분량이 많아서	13	65.0
	한국화 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	7	35.0
이론과 실기 비중	이론에 비중을 둔다	5	25.0
	실기에 비중을 둔다	7	35.0
	이론 50% 실기 50%	7	35.0
	여건상 실기지도를 못한다	1	5.0
중요시 하는 한국화 종류	사군자	4	20.0
	수묵화	5	25.0
	수묵담채화	8	40.0
	채색화	3	15.0
실기 지도 방법	교과서나 참고 자료를 보고 그리게 한다	7	35.0
	직접시범을 보이고 난 후 그리게 한다	9	45.0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제작과정을 보고 난 후 그린다	3	15.0
	직접 풍경이나 정물을 보고 그리게 한다	1	5.0
	합계	20	100.0



<표 3>의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수업 실태1를 보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학사가 40.0%, 지학사가 35.0%, 두산이 20.0% 순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 활용 정도에서는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가 45.0%로 가장 높고, 자주 활용한다가 40.0%, 항상 활용한다가 15.0%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교과서 활용을 거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활용되지 않는 이유를 보면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가 50.0%로 가장 높게 반응하고 있으며, 제작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가 30.0%,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다와 작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가 각각 10.0% 순으로 반응했다.

미술 수업 시 비중있게 지도하는 분야를 보면 서양화가 50.0%, 디자인이 25.0%, 한국화가 20.0%, 공예가 5.0% 순으로 조사 대상 중 한국화 전공교사(55%)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양화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간 한국화 총 수업시간을 보면 3-4시간이 50.0%로 가장 높고, 5시간 이상이 30.0%, 1-2시간이 20.0% 순이며, 다른 영역에 비해 한국화 지도시간을 적게 할에 하는 이유를 보면 한국화 외 다른 영역에서 지도할 분량이 많아서가 65.0%, 한국화 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이 35.0%이다.

이론과 실기 비중을 보면 실기에 비중을 둔다와 이론 50% 실기 50%로 한다가 각각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론에 비중을 둔다가 25.0%, 여건상 실기 지도를 못하는 경우도 5.0%에 달했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한국화 종류를 보면 수묵담채화가 40.0%로 가장 높고 수묵화가 25.0%, 사군자가 20.0%, 채색화가 15.0%이다.

실기 지도 방법에서는 직접시범을 보이고 난 후 그리게 한다가 45.0%로 가장 높으며, 교과서나 참고 자료를 보고 그리게 한다가 35.0%,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제작과정을 보고 난 후 그린다가 15.0%, 직접풍경이나 정물을 보고 그리게 한다가 5.0% 순이다.

교육과정에서 한국화 수업의 실태는 교과서는 교학사를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내용이 부족하여 실제 수업시간에는 거의 활용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술수업은 서양화를 비중있게 지도하고 있고 연간한국화 총 수업시간은 3-4시간정도이며 실기지도는 시범을 보이고 난 후 그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수업 실태2

질문 내용	응답 자료	빈도	퍼센트
한국화 실기 학습에 대한 학생들 반응	매우 흥미 있어 한다	1	5.0
	대체로 흥미 있어 한다	13	65.0
	그저 그렇다	6	30.0
서양화와 비교 시 한국화 수업비중 정도	50% 이상	4	20.0
	30% 이상	11	55.0
	20% 이상	5	25.0
교외 미술 전시회 관람 추천 횟수	1-2회	10	50.0
	3-4회	5	25.0
	5회 이상	1	5.0
	추천할 기회가 없다	4	20.0
한국화 관련 전시회 방문 추천 횟수	1-2회	11	55.0
	5회 이상	1	5.0
	추천할 기회가 없다	8	40.0
한국화 운영 상황	잘 운영되고 있다	14	70.0
	잘 운영되지 않는다	6	30.0

<표 4>의 교육과정에서 한국화 수업 실태2 한국화 실기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정도를 보면 대체로 흥미 있어 한다가 65.0%, 그저 그렇다가 30.0%, 매우 흥미 있어 한다가 5.0% 순으로 나타났다.

서양화와 비교하여 한국화 수업비중 정도를 보면 30% 이상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외 미술 전시회 관람 추천 횟수를 보면 1-2회가 50.0%로 가장 높고, 3-4회가 25.0%, 추천할 기회가 없다가 20.0%, 5회 이상이 5.0% 순이다.

한국화 운영 상황을 보면 잘 운영되고 있다가 70.0%로 대체적으로 한국화 운영 수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화 실기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에 관한 반응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한국화 교육의 인지도

질문 내용	응답 자료	빈도	퍼센트
한국화 교육과정 중요 정도	매우 중요하다	7	35.0
	중요하다	12	60.0
	그저 그렇다	1	5.0
한국화 교육과정 중요 이유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의 바탕이기 때문에	2	10.0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 때문에	14	70.0
	청소년기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	5.0
	다양한 재료사용으로 인한 창의성이 신장되기 때문에	3	15.0
학생들이 서양화에 비해 한국화 인지도가 높은지 여부	그렇다고 생각한다	2	10.0
	비슷하다	7	35.0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11	55.0
인지도가 낮은 이유	연간 한국화 수업 시간의 부족	5	25.0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부족	3	15.0
	체계적인 한국화 지도부족	5	25.0
	서양미술 중심의 교육	7	35.0
	합계	20	100.0

<표 5>의 한국화 교육의 인지도를 보면 한국화 교육과정 중요 정도는 중요하다가 60.0%, 매우 중요하다가 35.0%, 그저 그렇다가 5.0% 순이며, 한국화 교육과정이 중요한 이유를 보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 때문이 70.0%, 다양한 재료사용으로 인한 창의성이 신장되기 때문이 15.0%,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의 바탕이기 때문이 10.0%, 청소년기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5.0%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서양화에 비해 한국화 인지도가 높은지 여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55.0%로 가장 높게 반응했으며, 비슷하다가 35.0%, 그렇다고 생각한다가 10.0% 순이다. 인지도가 낮은 이유에서는 서양미술 중심의 교육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간 한국화 수업시간의 부족과 체계적인 한국화 지도 부족이 각각 25.0%,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부족이 15.0%로 조사되었다.

<표 6> 한국화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질문 내용	응답 자료	빈도	퍼센트
한국화 실기수업이 어려운 이유	한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학생 수가 많다	9	45.0
	한국화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잘 모른다	1	5.0
	준비가 많고 복잡하다	6	30.0
	용구 및 재료 사용법이 어렵다	4	20.0
한국화 실기수업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	교사의 관심이나 기능부족	2	10.0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부족	1	5.0
	교과과정상 지도시간의 부족	5	25.0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서	1	5.0
	학교의 교구 및 설비부족과 학생들의 수업준비 상태 미비	9	45.0
	과밀학급으로 인한 실기수업의 어려움	2	10.0
학생들의 한국화 관심과 흥미가 적은 원인	한국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1	5.0
	체계적인 지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6	30.0
	한국화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3	15.0
	진학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	10.0
	재료준비가 불편하기 때문에	6	30.0
	타 장르보다 시간배정이 적기 때문에	2	10.0
한국화 연수 참여 의사	적극 참여 하겠다	13	65.0
	유익하다면 참여 하겠다	7	35.0
교과서의 한국화 영역 개선할 점	한국화 이론과 실기에 대한 내용 분량 증가	2	10.0
	더 많은 참고작품과 참고작품에 대한 해석 보충	3	15.0
	기초적인 표현기법이나 제작과정 구체적으로 제시	10	50.0
	한국화 영역과 관련한 별도의 보조자료 제작보급	5	25.0
	합계	20	100.0

<표 6>의 한국화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 한국화 실기 수업이 어려운 이유를 보면 한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학생 수가 많다가 45.0%로 가장 높고 준비가 많고 복잡하다가 30.0%, 용구 및 재료 사용법이 어렵다가 20.0%, 한국화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잘 모른다가 5.0%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한국화 실기 수업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에서는 학교의 교구 및 설비 부족과 학생들의 수업준비 상태 미비가 45.0%로 가장 높다. 그 외 교과과

정상 지도시간의 부족이 25.0%, 교사의 관심이나 기능부족과 과밀학급으로 인한 실기수업의 어려움이 각각 10.0%,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부족과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서가 각각 5.0%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한국화 관심과 흥미가 적은 원인에서는 체계적인 지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과 재료준비가 불편해서가 각각 30.0%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한국화 표현이 어렵기 때문이 15.0%, 한국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과와 진학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타 장르보다 시간배정이 적기 때문이 각각 10.0%, 한국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 5.0%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화 연수 참여 의사에서는 적극 참여하겠다 65.0%, 유익하다면 참여 하겠다 10.0%로 나타났다. 교과서의 한국화 영역 개선할 점에서는 기초적인 표현 기법이나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가 50.0%로 가장 높으며, 한국화 영역과 관련한 별도의 보조자료 제작보급이 25.0%, 더 많은 참고작품과 참고작품에 대한 해석 보충이 15.0%, 한국화 이론과 실기에 대한 내용 분량 증가가 10.0%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보유하고 있는 용구

내용	구분	빈도	퍼센트
귀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용구	붓	3	6.4
	벼루	11	23.4
	먹	13	27.7
	화선지	5	10.6
	모포	6	12.8
	접시	5	10.6
	충분히 비치된 용구가 없다	4	8.5
	합계	47	100.0

<표 7>의 보유하고 있는 용구를 보면 먹이 27.7%로 가장 높고, 벼루가 23.4%, 모포가 12.8%, 화선지와 접시가 각각 10.6%, 충분히 비치된 용구가 없다가 8.5%, 붓이 6.4%로 파악되었다.

여전히 부족한 도구와 용구로 수업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고가의 붓이나 다량으로 써야 하는 화선지등은 준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준비하여 학생들이 부담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표 8> 바람직한 한국화 교수 학습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

질문 내용	응답 자료	빈도	퍼센트
바람직한 한국화 교수 학습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	교사 연수를 통한 교사의 지도능력 배양	2	7.7
	지도 자료와 시설 확충 및 실습 여건의 개선	12	46.2
	한국화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교과서 내용 재편성	1	3.8
	현재보다 미술 수업시수의 증가	6	23.1
	주요 과목 중심의 교수 학습 분위기 탈피	5	19.2
	합계	26	100.0

<표 8>의 바람직한 한국화 교수 학습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보면 지도 자료와 시설 확충 및 실습 여건의 개선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보다 미술 수업 시수의 증가가 23.1%, 주요 과목 중심의 교수 학습 분위기 탈피가 19.2%, 교사 연수를 통한 교사의 지도능력 배양이 7.7%, 한국화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교과서 내용 재편성이 3.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한국화 교수 학습을 위해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는 지도 자료의 부족과 시설 확충 및 실습 여건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교과서 내용 중 교사들이 참고하여 지도 할 수 있는 구체적 제작과정 내용을 수록하게 하거나, 별도의 지도 자료를 제작 배부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2. 한국화 학습에 대한 인지도 실태조사

본 조사는 한국화 수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주도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한국화 학습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설문지는 제주도내 남녀 중학교 2학년 학생 381명을 대상으로 실시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의 성별, 인원수는 <표 9>와 같다.

<표 9> 제주도 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응답자 실태

질문 내용	응답 내용	빈도	퍼센트
성별	남학생	170	44.6
	여학생	211	55.4
소속 학교	공립	310	81.4
	사립	71	18.6
학교 지역	제주시 동지역	138	36.2
	제주시 동부지역	6	1.6
	제주시 서부지역	37	9.7
	서귀포 동지역	109	28.6
	서귀포 동부지역	74	19.4
	서귀포 서부지역	16	4.2
	무응답	1	0.3
	합계	381	100.0

<표 9>의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 여학생이 55.4%, 남학생이 44.6%이며, 소속 학교에서는 공립이 81.4%, 사립이 18.6%이고, 지역별에서는 제주시 동지역이 36.2%, 서귀포 동지역 28.6%, 서귀포 동부지역이 19.4%, 제주시 서부지역이 9.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공·사립, 지역별 치우침 없이 골고루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응답자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다.

<표 10> 미술에 대한 흥미도(설문 4)

구분	내용	빈도	a_4				전체	x <sup>2</sup>	p
			매우 흥미 있다	흥미 있다	보통이다	흥미 없다			
성별	남학생	빈도	17	46	73	34	170	1.484	.686
		%	10.0%	27.1%	42.9%	20.0%	100%		
	여학생	빈도	19	54	103	35	211		
		%	9.0%	25.6%	48.8%	16.6%	100%		
	전체	빈도	36	100	176	69	381		
		%	9.4%	26.2%	46.2%	18.1%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12	36	68	22	138	8.039	.235
		%	8.7%	26.1%	49.3%	15.9%	100%		
	서귀포 시내	빈도	11	36	47	15	109		
		%	10.1%	33.0%	43.1%	13.8%	100%		
	그외 지역	빈도	13	28	60	32	133		
		%	9.8%	21.1%	45.1%	24.1%	100%		
	전체	빈도	36	100	175	69	380		
		%	9.5%	26.3%	46.1%	18.2%	100%		

<표 10의>의 미술에 대한 흥미도를 보면 남학생에서 보통이다가 42.9%, 흥미 있다가 27.1%, 흥미 없다가 20.0%, 매우 흥미 있다가 10.0% 순이며, 여학생에서도 보통이다가 48.8%, 흥미 있다가 25.6%, 흥미 없다가 16.6%, 매우 흥미 있다가 9.0% 순으로 응답하였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보통이다가 49.3%, 흥미있다가 26.1%, 서귀포 시내에서는 보통이다가 43.1%, 흥미 있다가 33.0%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에서는 보통이다가 45.1%, 흥미 없다가 24.1%, 흥미 있다가 21.1%순으로 반응을 보여 학생들이 미술에 대한 흥미도는 남·녀 또는 지역별은 차이없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흥미와 관심이 있는 영역(설문 5)

구분	내용	a_5						전체	x <sup>2</sup>	p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서예	감상				
성별	남학생	빈도	10	8	48	51	5	48	170	28.38 3	.000 ***
		%	5.9%	4.7%	28.2%	30.0%	2.9%	28.2%	100%		
	여학생	빈도	10	18	22	105	4	52	211		
		%	4.7%	8.5%	10.4%	49.8%	1.9%	24.6%	100%		
	전체	빈도	20	26	70	156	9	100	381		
		%	5.2%	6.8%	18.4%	40.9%	2.4%	26.2%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10	13	27	59	2	27	138	14.10 6	.168
		%	7.2%	9.4%	19.6%	42.8%	1.4%	19.6%	100%		
	서귀포 시내	빈도	2	9	17	43	4	34	109		
		%	1.8%	8.3%	15.6%	39.4%	3.7%	31.2%	100%		
	그외 지역	빈도	8	4	26	53	3	39	133		
		%	6.0%	3.0%	19.5%	39.8%	2.3%	29.3%	100%		
	전체	빈도	20	26	70	155	9	100	380		
		%	5.3%	6.8%	18.4%	40.8%	2.4%	26.3%	100%		

<표 11>의 관심있는 영역을 보면 남학생에서 디자인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조소와 감상이 각각 28.2% 이다. 여학생에서는 디자인이 49.8%, 감상이 24.6%, 조소가 10.4%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디자인이 42.8%, 조소와 감상이 각각 19.6%로 나타났고, 서귀포 시내에서는 디자인이 39.4%, 감상이 31.2% 순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디자인이 39.8%, 감상이 29.35%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 따른 흥미와 관심이 있는 영역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녀 학생 모두 디자인 수업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고 있으나 전통미술에 해당하는 한국화 및 서예 수업에 대한 흥미는 아주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2> 한국화에 대한 흥미가 없는 이유(설문 6)

구분	내용	빈도	a_6				전체	$\chi^2$	p
			평소 한국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흥미가 없다	준비물이 많고 용구와 재료 사용법이 복잡하다	전통미술의 가치를 모르겠다			
성별	남학생	빈도	44	35	53	33	165	23.075	.000***
		%	26.7%	21.2%	32.1%	20.0%	100%		
	여학생	빈도	90	47	46	14	197		
		%	45.7%	23.9%	23.4%	7.1%	100%		
	전체	빈도	134	82	99	47	362		
		%	37.0%	22.7%	27.3%	13.0%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51	29	36	17	133	.588	.997
		%	38.3%	21.8%	27.1%	12.8%	100%		
	서귀포 시내	빈도	39	24	27	13	103		
		%	37.9%	23.3%	26.2%	12.6%	100%		
	그외 지역	빈도	43	29	36	17	125		
		%	34.4%	23.2%	28.8%	13.6%	100%		
	전체	빈도	133	82	99	47	361		
		%	36.8%	22.7%	27.4%	13.0%	100%		

<표 12>의 한국화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없는 이유를 보면 남학생에서 준비물이 많고 용구와 재료 사용법이 복잡하다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소 한국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다가 26.7%,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흥미가 없다가 21.2%, 전통미술의 가치를 모르겠다가 20.0% 순으로 응답했다.

여학생에서는 평소 한국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다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흥미가 없다가 23.9%, 준비물이 많고 용구와 재료 사용법이 복잡하다가 23.4%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학생은 준비물이 많고 용구와 재료 사용법이 복잡하다, 여학생은 평소 자주 접할 기회가 적다라는 반응에 각각 높게 응답하고 있어 흥

미가 없는 이유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평소 한국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다가 38.3%로 반응이 가장 높으며, 준비물이 많고 용구와 재료 사용법이 복잡하다가 27.1%로 그 다음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서귀포 시내에서는 평소 한국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다가 37.9%로 가장 높고, 준비물이 많고 용구와 재료 사용법이 복잡하다가 26.2% 순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평소 한국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다가 34.4%, 준비물이 많고 용구와 재료 사용법이 복잡하다가 28.8%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 따라 한국화에 대한 흥미가 없는 이유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학생들의 미술에 흥미를 잃는 가장 큰 요인이 표현 방법의 미숙과 표현 능력의 부족이다. 한국화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한국화의 전통 도구 대신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재료나 기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특별한 능력이 없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재료 사용의 다양한 경험은 그 자체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흥미유발을 위해 다양한 표현 재료는 색연필, 매직, 색볼펜, 먹, 잉크, 페인트(유성, 수성), 유성락카, 양초, 파스텔, 염색 물감, 염색용 색종이, 포스터 칼라, 락스, 초코릿, 소금, 호분, 색한지, 셀로판지, 우유, 커피, 목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표현 도구로는 둥근붓, 평붓, 큰 붓, 작은 붓, 한국화 붓, 대나무, 성냥개비. 색연필, 나무젓가락, 빨대, 짚어서 나타낼 수 있는 물건(단추, 지우개, 핀, 철사, 나뭇잎), 손가락들을 활용할 수 있다.

표현방법에는 점묘, 선묘, 찍기, 번지기, 흘리기, 불기, 문지르기, 배수성, 붓으로 뿌리기, 수묵, 수묵담채, 수묵채색, 마블링, 데칼코마니, 모자이크, 콜라주, 태우기, 구겨 펴서 그리기, 책상위에 그린 후 찍어내기, 화선지 뒤집어 그리기, 녹이기, 실로 그리기, 호일에 그리기 등을 이용한 수업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화는 기법과 재료를 익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더구나 그 정신과 전통적 기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는데서 흥미를 잃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표 13> 지금까지 전시회 관람횟수(설문 7)

구분	내용	빈도	a_7				전체	$\chi^2$	p
			1-2번	3-4번	5번 이상	가 본 적이 없다			
성별	남학생	빈도	55	43	12	60	170	7.164	.067
		%	32.4%	25.3%	7.1%	35.3%	100%		
	여학생	빈도	81	45	28	57	211		
		%	38.4%	21.3%	13.3%	27.0%	100%		
	전체	빈도	136	88	40	117	381		
		%	35.7%	23.1%	10.5%	30.7%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44	28	19	47	138	7.423	.283
		%	31.9%	20.3%	13.8%	34.1%	100%		
	서귀포 시내	빈도	37	26	13	33	109		
		%	33.9%	23.9%	11.9%	30.3%	100%		
	그 외 지역	빈도	54	34	8	37	133		
		%	40.6%	25.6%	6.0%	27.8%	100%		
	전체	빈도	135	88	40	117	380		
		%	35.5%	23.2%	10.5%	30.8%	100%		

<표 13>의 지금까지 미술 전시회 관람 횟수를 보면 남학생은 가본 적이 없다가 35.3%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여학생은 1-2번이 38.4%, 가본 적이 없다가 27.0%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는 가 본 적이 없다 34.1%, 서귀포 시내는 1-2회 33.9%, 그 외 지역은 1-2회가 40.6%로 반응하여 서귀포 시내와 그 외 지역에서는 1-2회 정도 전시회를 다녀 온 것을 알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미술 전시회 관람 횟수를 보면 1-2번 관람했다는 반응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는 반응도 30%에 달하고 있어 미술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전시회 관람을 적극 추천하여 학생들에게 감상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표 14> 7번관련 그 중 한국화 전시회 관람횟수(설문 8)

구분	내용	빈도	a_8				전체	$\chi^2$	p
			1-2번	3-4번	5번 이상	가 본 적이 없다			
성별	남학생	빈도	63	18	4	85	170	4.220	.239
		%	37.1%	10.6%	2.4%	50.0%	100%		
	여학생	빈도	77	11	8	110	206		
		%	37.4%	5.3%	3.9%	53.4%	100%		
	전체	빈도	140	29	12	195	376		
		%	37.2%	7.7%	3.2%	51.9%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45	11	3	77	136	4.796	.570
		%	33.1%	8.1%	2.2%	56.6%	100%		
	서귀포 시내	빈도	47	8	5	48	108		
		%	43.5%	7.4%	4.6%	44.4%	100%		
	그외 지역	빈도	47	10	4	70	131		
		%	35.9%	7.6%	3.1%	53.4%	100%		
	전체	빈도	139	29	12	195	375		
		%	37.1%	7.7%	3.2%	52.0%	100%		

<표 14>의 7번 관련 그 중 한국화 관련 전시회 관람 횟수를 보면 남학생에서 가본 적이 없다가 50.0%로 가장 높고, 1-2번이 37.1%, 3-4번이 10.6% 순이며, 여학생에서는 가본 적이 없다가 53.4%, 1-2번이 37.4%, 지역적으로도 순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화 관련 전시회 관람은 가 본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전시회와 연관시켜 감상문 쓰기와 전시된 그림 모사하기 등 체험 위주의 지도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상을 통한 간접 체험은 또 다른 창작 의욕과 흥미 및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표 15> 한국화 실기수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용구 준비(설문 10)

구분	내용	빈도	a_ 10				전체	$\chi^2$	p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대체로 준비되어 있다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성별	남학생	빈도	12	97	43	17	169	11.56 0	.009 **
		%	7.1%	57.4%	25.4%	10.1%	100%		
	여학생	빈도	10	136	60	5	211		
		%	4.7%	64.5%	28.4%	2.4%	100%		
	전체	빈도	22	233	103	22	380		
		%	5.8%	61.3%	27.1%	5.8%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7	92	31	8	138	6.889	.331
		%	5.1%	66.7%	22.5%	5.8%	100%		
	서귀포 시내	빈도	6	67	27	9	109		
		%	5.5%	61.5%	24.8%	8.3%	100%		
	그외 지역	빈도	9	74	44	5	132		
		%	6.8%	56.1%	33.3%	3.8%	100%		
	전체	빈도	22	233	102	22	379		
		%	5.8%	61.5%	26.9%	5.8%	100%		

<표 15>의 실기 수업 시 필요한 시설 및 용구 준비 정도를 보면 남학생은 대체로 준비되어 있다가 57.4%,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25.4%,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10.1% 순으로 응답했으며, 여학생은 대체로 준비되어 있다가 64.5%,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28.4%,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27%로 조사되었다.

이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11.560$ ,  $p<.01\%$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시설 및 용구 준비 정도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한국화 영역 중 관심있는 분야(설문 11)

구분	내용	빈도	a_ 11					전체	$\chi^2$	p
			사군자	기명절 지화	산수화	민화	이론 및 감상			
성별	남학생	빈도	19	24	51	25	50	169	4.209	.378
		%	11.2%	14.2%	30.2%	14.8%	29.6%	100%		
	여학생	빈도	16	24	76	39	54	209		
		%	7.7%	11.5%	36.4%	18.7%	25.8%	100%		
	전체	빈도	35	48	127	64	104	378		
		%	9.3%	12.7%	33.6%	16.9%	27.5%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11	17	57	23	29	137	10.507	.231
		%	8.0%	12.4%	41.6%	16.8%	21.2%	100%		
	서귀포 시내	빈도	11	10	34	21	32	108		
		%	10.2%	9.3%	31.5%	19.4%	29.6%	100%		
	그외 지역	빈도	13	21	36	20	42	132		
		%	9.8%	15.9%	27.3%	15.2%	31.8%	100%		
	전체	빈도	35	48	127	64	103	377		
		%	9.3%	12.7%	33.7%	17.0%	27.3%	100%		

<표 16>의 관심있는 한국화 분야를 보면 남학생은 산수화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론 및 감상이 29.6%, 기명절지화가 14.2%, 사군자가 11.2% 순이며, 여학생은 산수화가 36.4%, 이론과 감상이 25.8%, 민화가 18.7% 순으로, 성별에 따라서 한국화 영역 중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산수화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산수화가 41.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서귀포 시내에서도 산수화가, 그 외 지역에서는 이론 및 감상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한국화 영역 중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산수화임을 알 수가 있다.

<표 17> 한국화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배운 경험(설문 12)

구분	내용	빈도	a_ 12		전체	$\chi^2$	p
			있다	없다			
성별	남학생	빈도	65	105	170	5.446	.020*
		%	38.2%	61.8%	100.0%		
	여학생	빈도	57	154	211		
		%	27.0%	73.0%	100.0%		
	전체	빈도	122	259	381		
		%	32.0%	68.0%	10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63	75	138	26.807	.000 ***
		%	45.7%	54.3%	100.0%		
	서귀포 시내	빈도	16	93	109		
		%	14.7%	85.3%	100.0%		
	그외 지역	빈도	43	90	133		
		%	32.3%	67.7%	100.0%		
	전체	빈도	122	258	380		
		%	32.1%	67.9%	100.0%		

<표 17>의 구체적인 제작과정 학습 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없다가 68%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에서 없다가 61.8%, 있다가 38.2%, 여학생에서는 없다가 73.0%, 있다가 27.0%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5.446$ ,  $p<.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구체적인 제작과정 학습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없다가 54.3%, 있다가 45.7%로, 서귀포 시내에서는 없다가 85.3%, 있다가 14.7%로 나타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없다가 67.7%, 있다가 32.3%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26.807$ ,  $p<.001$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지역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제작과정 학습여부는 제주시내, 그 외 지역, 서귀포시내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화 실기 수업에서 구체적인 제작과정 학습 여부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8> 실기 수업 시 배운 한국화의 종류(설문 13)

구분	내용	빈도	a_13				전체	$\chi^2$	p
			수묵화	수묵담채화	채색화	실기 대신 이론함			
성별	남학생	빈도	38	25	26	81	170	31.449	.000 ***
		%	22.4%	14.7%	15.3%	47.6%	100%		
	여학생	빈도	20	68	53	70	211		
		%	9.5%	32.2%	25.1%	33.2%	100%		
	전체	빈도	58	93	79	151	381		
		%	15.2%	24.4%	20.7%	39.6%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32	19	42	45	138	97.614	.000 ***
		%	23.2%	13.8%	30.4%	32.6%	100%		
	서귀포 시내	빈도	5	12	18	74	109		
		%	4.6%	11.0%	16.5%	67.9%	100%		
	그외 지역	빈도	21	62	19	31	133		
		%	15.8%	46.6%	14.3%	23.3%	100%		
	전체	빈도	58	93	79	150	380		
		%	15.3%	24.5%	20.8%	39.5%	100%		

<표 18>의 실기 수업에서 주로 배운 한국화의 종류를 보면 남학생은 실기 대신 이론 함이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묵화가 22.4%, 채색화가 15.3%, 수묵담채화가 14.7%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에서는 실기 대신 이론 함이 33.2%로 가장 높고, 수묵담채화가 32.2%, 채색화가 25.1% 순이다. 성별과 관계없이 실기 수업 대신 이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실기 대신 이론 함이 32.6%, 서귀포 시내에서도 실기 대신 이론함인 67.9%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수묵담채화가 46.6%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따라서 각 분야별 편중됨 없이 고르게 다루어져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기 지도에 필요한 준비물 확충과 실기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화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미술교사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표 19> 한국화 실기 수업 방법(설문 14)

구분	내용	빈도	a_ 14				전체	$\chi^2$	p
			교과서나 참고작품 을 보며 따라 그렸다	선생님의 제작과정 시범을 보고 나서 그렸다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해 제작과정을 보고 나서 그렸다	직접풍 경이나 정물을 보면서 그렸다			
성 별	남학생	빈도	47	63	38	21	169	10.68 7	.014*
		%	27.8%	37.3%	22.5%	12.4%	100%		
	여학생	빈도	79	52	32	34	197		
		%	40.1%	26.4%	16.2%	17.3%	100%		
	전체	빈도	126	115	70	55	366		
		%	34.4%	31.4%	19.1%	15.0%	100%		
지 역	제주 시내	빈도	47	53	16	17	133	37.21 9	.000 ***
		%	35.3%	39.8%	12.0%	12.8%	100%		
	서귀포 시내	빈도	39	39	10	17	105		
		%	37.1%	37.1%	9.5%	16.2%	100%		
	그외 지역	빈도	39	23	44	21	127		
		%	30.7%	18.1%	34.6%	16.5%	100%		
	전체	빈도	125	115	70	55	365		
		%	34.2%	31.5%	19.2%	15.1%	100%		

<표 19>의 실기 수업 방법을 보면 남학생에서 선생님의 제작과정 시범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 37.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교과서나 참고작품을 보며 따라 그렸다가 27.8%,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해 제작과정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 22.5%, 직접풍경이나 정물을 보면서 그렸다가 12.4%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는 교과서나 참고작품을 보며 따라 그렸다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선생님의 제작과정 시범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 26.4%, 직접풍경이나 정물을 보면서 그렸다가 17.3%,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해 제작과정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 16.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에서 선생님의 제작과정 시범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 37.3%로 가장 높고, 여학생에서는 교과서나 참고작품을 보며 따라 그렸다가 40.1%로 가장 많아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10.687$ ,  $p<.05$ )으로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선생님이 제작과정 시범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 39.8%로 가장 높고, 서귀포 시내에서는 교과서나 참고작품을 보며 따라 그렸다가와 선생님의 제작과정 시범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 각각 37.1%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해 제작과정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37.219$ ,  $p<.001$ )으로 한국화 실기 수업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과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모두 선생님의 제작과정을 보고 그렸다가에 높게 응답하였으나 그 외 지역에서는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해 제작과정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 가장 반응이 높고 그 반면에 선생님의 제작과정 시범을 보고 나서 그렸다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보였다.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되려면 수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미술수업은 다른 어느 교과보다도 분위기가 즐거워야 한다. 분위기가 즐겁지 않으면 지루하고 재미없는 수업이 된다.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고 난 후 순회하며 개별적으로 지도를 덧붙이고 가능하다면 가벼운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말아야 학생들의 높은 수업 참여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0> 실기 수업 시 준비물 준비 상태와 작품에 임하는 태도(설문 15)

구분	내용	빈도	a_ 15				전체	$\chi^2$	p
			준비물을 전혀 준비해보지 않았고 작품제작에도 관심이 없다	가끔씩 준비를 못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 한다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작품제작에는 자신없어 열심히 하지 않음	준비물도 잘 챙기고 작품제작에도 최선을 다 한다			
성별	남학생	빈도	30	79	40	20	169	11.764	.008**
		%	17.8%	46.7%	23.7%	11.8%			
	여학생	빈도	20	99	37	46			
		%	9.9%	49.0%	18.3%	22.8%			
	전체	빈도	50	178	77	66			
		%	13.5%	48.0%	20.8%	17.8%			
지역	제주 시내	빈도	12	64	32	25	370	15.010	.020*
		%	9.0%	48.1%	24.1%	18.8%			
	서귀포 시내	빈도	25	50	16	16			
		%	23.4%	46.7%	15.0%	15.0%			
	그외 지역	빈도	12	64	29	25			
		%	9.2%	49.2%	22.3%	19.2%			
	전체	빈도	49	178	77	66			
		%	13.2%	48.1%	20.8%	17.8%			

<표 20>의 준비물 준비 상태와 학습태도를 보면 남학생에서 가끔씩 준비를 못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 한다가 46.7%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작품제작에는 자신없어 열심히 하지 않음이 23.7%, 준비물을 전혀 준비해보지 않았고 작품제작에도 관심이 없다가 17.8%, 준비물도 잘 챙기고 작품제작에도 최선을 다한다가 11.8%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는 가끔씩 준비를 못 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 한다가 49.0%로 가장 높으며, 준비물도 잘 챙기고 작품제작에도 최선을 다한다가 22.8%,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작품제작에는 자신없어 열심히 하지 않음이 18.3%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11.764$ ,  $p<.01$ )으로 성별에 따라 준비물 준비 상태와 학습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작품제작에 자신이 없어 열심히 하지 않을 때도 있으나, 여학생은 준비물도 잘 챙기고 작품제작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가끔씩 준비를 못 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 한다가 48.1%로 가장 높고,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작품제작에는 자신없어 열심히 하지 않음이 24.1%로, 서귀포 시내에서는 가끔씩 준비를 못 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 한다가 46.7%, 준비물을 전혀 준비해보지 않았고 작품제작에도 관심 없다가 23.4%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가끔씩 준비를 못 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한다가 49.2%로 가장 높으며,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작품제작에는 자신없어 열심히 하지 않음이 22.3%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15.010$ ,  $p<.05$ )으로 지역에 따라 실기 수업 시 준비물 준비 상태와 작품에 임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제주시내와 그 외 지역에서는 가끔씩 준비를 못 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 하거나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자신이 없어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서귀포시내는 가끔씩 준비를 못 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 하고 있거나, 준비물을 전혀 준비해 보지도 않았고 작품제작에도 관심이 없는 것(23.4%)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서귀포 시내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한국화에 대한 흥미 부족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작품 제작과정을 제시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작품제작 의욕을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한국화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표 21> 지금까지 한국화를 그려 본 경험(설문 16)

구분	내용	빈도	a_16				전체	$\chi^2$	p
			5회 이상 그려보았다	3-4회 그려보았다	1-2회 그려보았다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			
성별	남학생	빈도	8	31	58	73	170	12.12 4	.007 **
		%	4.7%	18.2%	34.1%	42.9%	100%		
	여학생	빈도	5	25	108	73	211		
		%	2.4%	11.8%	51.2%	34.6%	100%		
	전체	빈도	13	56	166	146	381		
		%	3.4%	14.7%	43.6%	38.3%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6	33	55	44	138	46.60 5	.000 ***
		%	4.3%	23.9%	39.9%	31.9%	100%		
	서귀포 시내	빈도	2	8	33	66	109		
		%	1.8%	7.3%	30.3%	60.6%	100%		
	그외 지역	빈도	5	15	78	35	133		
		%	3.8%	11.3%	58.6%	26.3%	100%		
	전체	빈도	13	56	166	145	380		
		%	3.4%	14.7%	43.7%	38.2%	100%		

<표 21>의 지금까지 한국화 그려본 경험을 보면 남학생에서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가 42.9%로 가장 높고, 여학생에서는 1-2회 그려보았다가 51.2%로 가장 응답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12.124$ ,  $p<.01$ )으로 성별에 따라 여학생이 한국화 그려 본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1-2회 그려보았다가 39.9%, 서귀포 시내에서는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가 60.6%, 그 외 지역에서는 1-2회 그려보았다가 58.6%로 각각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46.605$ ,  $p<.001$ )으로 서귀포시내에서는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가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국화 그려본 경험을 보면 남학생은 한 번도 그린 적이 없고 여학생은 1-2회 그려본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한국화 그린 경험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내 또는 그 외 지역에서는 1-2회 그려 보았지만 서귀포지역에서는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귀포 학생들의 한국화 그리기 경험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표 22> 지난 1년간 한국화 그린 횟수(설문17)

구분	내용	빈도	a_ 17				전체	$\chi^2$	p
			5회 이상 그려보았다	3-4회 그려보았다	1-2회 그려보았다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			
성별	남학생	빈도	4	24	60	82	170	15.918	.001***
		%	2.4%	14.1%	35.3%	48.2%	100%		
	여학생	빈도	4	8	102	97	211		
		%	1.9%	3.8%	48.3%	46.0%	100%		
	전체	빈도	8	32	162	179	381		
		%	2.1%	8.4%	42.5%	47.0%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3	23	56	56	138	63.032	.000***
		%	2.2%	16.7%	40.6%	40.6%	100%		
	서귀포 시내	빈도	2	2	25	80	109		
		%	1.8%	1.8%	22.9%	73.4%	100%		
	그 외 지역	빈도	3	7	81	42	133		
		%	2.3%	5.3%	60.9%	31.6%	100%		
	전체	빈도	8	32	162	178	380		
		%	2.1%	8.4%	42.6%	46.8%	100%		

<표 22>의 지난 1년 간 한국화 그려본 횟수를 보면 남학생에서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가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에서는 1-2회 그려보았다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15.918$ ,  $p<.001$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1-2회 그려 보았다와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가 각각 40.6%로 나타났으며, 서귀포 시내에서는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가 73.4%로 가장 높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1-2회 그려보았다가 60.9%가 가장 높다. 이런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63.032$ ,  $p<.001$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23>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국화 수업을 한다면(설문 18)

구분	내용	빈도	a_ 18				전체	$\chi^2$	p
			관심이 있어 꼭 배우고 싶다	한 번쯤 배워 보고 싶다	그저 그렇다	배우고 싶지 않다			
성별	남학생	빈도	9	48	61	52	170	20.709	.000 ***
		%	5.3%	28.2%	35.9%	30.6%	100%		
	여학생	빈도	9	85	91	26	211		
		%	4.3%	40.3%	43.1%	12.3%	100%		
	전체	빈도	18	133	152	78	381		
		%	4.7%	34.9%	39.9%	20.5%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9	50	49	30	138	4.022	.674
		%	6.5%	36.2%	35.5%	21.7%	100%		
	서귀포 시내	빈도	3	39	43	24	109		
		%	2.8%	35.8%	39.4%	22.0%	100%		
	그외 지역	빈도	6	44	59	24	133		
		%	4.5%	33.1%	44.4%	18.0%	100%		
	전체	빈도	18	133	151	78	380		
		%	4.7%	35.0%	39.7%	20.5%	100%		

<표 23>의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국화 수업을 한다면을 보면 남학생에서 그저 그렇다가 35.9%, 배우고 싶지 않다가 30.6%, 한 번쯤 배워 보고 싶다가 28.2%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여학생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43.1%, 한 번쯤 배워 보고 싶다가 40.3%, 배우고 싶지 않다가 12.3% 순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20.709$ ,  $p<.001$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재미있는 한국화 수업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가 36.2%, 그저 그렇다가 35.5%, 서귀포 시내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39.4%로 가장 높고,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가 35.8%다. 그 외 지역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44.4%로 가장 높으며,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가 33.1%로 나타났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국화 수업을 한다면 한 번쯤 배우고 싶다는 반응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높고(40.3%), 지역별로는 제주시내가 36.2%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시내 학생과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높으며 또한, 한국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 실기와 이론 중 재미있는 수업(설문 19)

구분	내용	빈도	a_ 19				전체	$\chi^2$	p
			이론 수업이 재미있다	실기 수업이 재미있다	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있다	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없다			
성별	남학생	빈도	22	75	18	55	170	12.33 0	.006 **
		%	12.9%	44.1%	10.6%	32.4%	100%		
	여학생	빈도	18	131	14	48	211		
		%	8.5%	62.1%	6.6%	22.7%	100%		
	전체	빈도	40	206	32	103	381		
		%	10.5%	54.1%	8.4%	27.0%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14	87	7	30	138	11.67 5	.070
		%	10.1%	63.0%	5.1%	21.7%	100%		
	서귀포 시내	빈도	15	50	9	35	109		
		%	13.8%	45.9%	8.3%	32.1%	100%		
	그외 지역	빈도	11	69	16	37	133		
		%	8.3%	51.9%	12.0%	27.8%	100%		
	전체	빈도	40	206	32	102	380		
		%	10.5%	54.2%	8.4%	26.8%	100%		

<표 24>의 실기와 이론 수업 흥미도를 보면 남학생에서 실기 수업이 재미있다가 44.1%로 가장 높으며, 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없다가 32.4%, 이론 수업이 재미있다가 12.9%, 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있다가 10.8%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에서는 실기수업이 재미있다가 62.1%, 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없다가 22.7%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실기 수업이 재미있다가 63.0%,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없다가 21.7%, 서귀포 시내에서 실기 수업이 재미있다가 45.9%, 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없다가 32.1%순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실기 수업이 재미있다가 51.9%로 가장 높고, 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없다가 27.8%로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기와 이론 중 재미있는 수업은 성별 및 지역 모두 실기 수업이 재미있다고 대답하고 있어 이론 보다는 실기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25> 교과서 내용 중 한국화 영역의 분량(설문 20)

구분	내용	빈도	a_20				전체	$\chi^2$	p
			많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잘 모른다			
성별	남학생	빈도	3	55	53	59	170	5.348	.148
		%	1.8%	32.4%	31.2%	34.7%	100%		
	여학생	빈도	12	61	55	82	210		
		%	5.7%	29.0%	26.2%	39.0%	100%		
	전체	빈도	15	116	108	141	380		
		%	3.9%	30.5%	28.4%	37.1%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7	51	43	37	138	13.308	.038*
		%	5.1%	37.0%	31.2%	26.8%	100%		
	서귀포 시내	빈도	2	25	31	51	109		
		%	1.8%	22.9%	28.4%	46.8%	100%		
	그외 지역	빈도	6	40	34	52	132		
		%	4.5%	30.3%	25.8%	39.4%	100%		
	전체	빈도	15	116	108	140	379		
		%	4.0%	30.6%	28.5%	36.9%	100%		

<표 25>의 교과서의 한국화 영역 분량을 보면 남학생에서 잘 모른다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적당하다가 32.4%, 부족하다가 31.2% 순으로 응답하고, 여학생에서는 잘 모른다가 39.0%로 가장 높으며, 적당하다가 29.0%, 부족하다가 26.2%임을 알 수가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여 교과서의 한국화 영역 분량에서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역을 보면 제주시내에서 적당하다가 37.0%로 가장 높으며, 부족하다가 31.2%, 서귀포 시내는 잘 모른다가 46.8%로 가장 높고, 부족하다가 28.4%, 적당하다가 22.9%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을 보면 잘 모른다가 39.4%, 적당하다가 30.3%로, 부족하다가 28.5%로 응답하였다.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13.308$ ,  $p<.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26> 수업 시 교과서 내용의 도움 정도(설문 21)

			a_21				전체	$\chi^2$	p
			도움이 많이 된다	도움이 조금 된다	그저 그렇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성별	남학생	빈도	17	55	68	26	166	18.703	.000***
		%	10.2%	33.1%	41.0%	15.7%	100.0%		
	여학생	빈도	2	77	106	26	211		
		%	.9%	36.5%	50.2%	12.3%	100.0%		
	전체	빈도	19	132	174	52	377		
		%	5.0%	35.0%	46.2%	13.8%	10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8	53	63	13	137	6.164	.405
		%	5.8%	38.7%	46.0%	9.5%	100.0%		
	서귀포 시내	빈도	3	37	48	20	108		
		%	2.8%	34.3%	44.4%	18.5%	100.0%		
	그외 지역	빈도	8	42	62	19	131		
		%	6.1%	32.1%	47.3%	14.5%	100.0%		
	전체	빈도	19	132	173	52	376		
		%	5.1%	35.1%	46.0%	13.8%	100.0%		

<표 26>의 수업 시 교과서 도움정도를 보면 남학생에서 그저 그렇다가 41.0%, 도움이 조금 된다가 33.1%, 전혀 도움이 안된다가 15.7%, 도움이 많이 된다가 10.2% 순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학생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50.2%, 도움이 조금 된다가 36.5%, 전혀 도움이 안된다가 12.3%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를 보면 그저 그렇다가 46.0% 가장 높고, 도움이 조금 된다가 38.7%, 서귀포 시내를 보면 그저 그렇다가 44.4%로 가장 높으며, 도움이 조금 된다가 34.3%, 그 외 지역에서는 그저 그렇다가 47.3%로 가장 높고, 도움이 조금 된다가 32.1%이다.

교과서 내용 중 기초적인 다양한 표현 기법이나 제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27> 한국화 대한 인지도(설문 22)

			a_22				전체	$\chi^2$	p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성별	남학생	빈도	9	33	82	46	170	11.263	.010 **
		%	5.3%	19.4%	48.2%	27.1%	100%		
	여학생	빈도	8	18	127	58	211		
		%	3.8%	8.5%	60.2%	27.5%	100%		
	전체	빈도	17	51	209	104	381		
		%	4.5%	13.4%	54.9%	27.3%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7	20	77	34	138	4.638	.591
		%	5.1%	14.5%	55.8%	24.6%	100%		
	서귀포 시내	빈도	4	9	63	33	109		
		%	3.7%	8.3%	57.8%	30.3%	100%		
	그 외 지역	빈도	6	22	69	36	133		
		%	4.5%	16.5%	51.9%	27.1%	100%		
	전체	빈도	17	51	209	103	380		
		%	4.5%	13.4%	55.0%	27.1%	100%		

<표 27>의 한국화 인지도를 보면 남학생에서 보통이다가 48.2%로 가장 높으며, 모른다가 27.1%, 잘 알고 있다가 19.4%, 매우 잘 알고 있다 5.3% 순이다. 여학생에서는 보통이다가 60.2%, 모른다가 27.5%, 잘 알고 있다 8.5%, 매우 잘 알고 있다 3.8%이다.

성별 한국화의 인지도는 남학생이 알고 있다의 반응이 24.7%, 여학생은 12.3%로 남학생이 한국화 인지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보통이다가 55.8%로 가장 높으며, 모른다가 24.6%, 서귀포 시내에서는 보통이다가 57.8%, 모른다가 30.3%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보통이다가 51.9%, 모른다가 27.1%로 나타났다. 지역별 한국화 인지도를 살펴보면, 제주시내에서 알고 있다의 반응은 19.6%, 서귀포시내는 12%, 그 외 지역은 28%로 반응을 보였다.

제주시나 서귀포시 보다는 그 외 지역이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고 한 교사가 지도해야할 학생 수가 시내 보다는 다소 적어 한국화에 대한 학습 효과가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28> 한국화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정도(설문 23)

구분	내용	빈도	a_23				전체	$\chi^2$	p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성별	남학생	빈도	5	21	85	57	168	3.455	.327
		%	3.0%	12.5%	50.6%	33.9%	100%		
	여학생	빈도	6	15	119	71	211		
		%	2.8%	7.1%	56.4%	33.6%	100%		
	전체	빈도	11	36	204	128	379		
		%	2.9%	9.5%	53.8%	33.8%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4	12	79	43	138	6.911	.329
		%	2.9%	8.7%	57.2%	31.2%	100%		
	서귀포 시내	빈도	2	6	59	42	109		
		%	1.8%	5.5%	54.1%	38.5%	100%		
	그외 지역	빈도	5	18	66	42	131		
		%	3.8%	13.7%	50.4%	32.1%	100%		
	전체	빈도	11	36	204	127	378		
		%	2.9%	9.5%	54.0%	33.6%	100%		

<표 28>의 재료 및 용구 사용법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보면 남학생에서 보통이다가 50.6%, 모른다가 33.9%, 잘 알고 있다가 12.5%, 여학생에서는 보통이다가 56.4%, 모른다가 33.6% 임을 알 수 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보통이다가 57.2%로 가장 높고, 모른다가 31.2%, 서귀포 시내에서는 보통이다가 54.1%, 모른다가 38.5%이다. 그 외 지역을 보면 보통이다가 50.4%, 모른다가 32.1%로 반응하고 있어 한국화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아느냐는 질문에 성별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화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정도에 54%가 보통이라고 답하고 있고 모른다는 반응도 34%나 나타나고 있어 수업에 앞서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우선적으로 익히도록 한 후 실기 지도에 임해야 할 것이다.

<표 29> 농담 표현 방법을 알고 있는 정도(설문 24)

			a_24				전체	$\chi^2$	p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성별	남학생	빈도	14	15	74	67	170	11.975	.007 **
		%	8.2%	8.8%	43.5%	39.4%	100%		
	여학생	빈도	7	25	120	59	211		
		%	3.3%	11.8%	56.9%	28.0%	100%		
	전체	빈도	21	40	194	126	381		
		%	5.5%	10.5%	50.9%	33.1%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6	13	71	48	138	9.702	.138
		%	4.3%	9.4%	51.4%	34.8%	100%		
	서귀포 시내	빈도	4	9	52	44	109		
		%	3.7%	8.3%	47.7%	40.4%	100%		
	그 외 지역	빈도	11	18	71	33	133		
		%	8.3%	13.5%	53.4%	24.8%	100%		
	전체	빈도	21	40	194	125	380		
		%	5.5%	10.5%	51.1%	32.9%	100%		

<표 29>의 농담표현 기법을 보면 남학생에서 보통이다가 43.5%, 모른다가 39.4%, 잘 알고 있다는 8.8%, 매우 잘 알고 있다는 8.2%로 응답하였고, 여학생에서는 보통이다가 56.9%, 모른다가 28.0%, 잘 알고 있다 11.8%, 매우 잘 알고 있다 3.3%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11.975$ ,  $p<.01$ )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농담 표현 방법에 대해서 더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주 시내에서 보통이다가 51.4%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모른다가 34.8%, 서귀포 시내에서 보통이다가 47.7%, 모른다가 40.4%,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는 보통이다가 53.4%, 모른다가 24.8%순으로 나타났다.

먹을 다루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한 붓에 농담을 표현하거나 변화있는 선을 그릴 수 있기까지는 일정한 연습과정을 걸쳐야만 올바른 표현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화에서 기본으로 다루지는 농담 표현은 반드시 전통재료인 붓, 화선지, 먹만을 이용하여 나타내기 보다는 학생들의 흥미 유발이 가능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체험하면서 농담표현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 할 필요가 있다.

<표 30> 표현 기법을 알고 있는 정도(설문 25)

구분	내용	빈도	a_25				전체	$\chi^2$	p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성별	남학생	빈도	6	20	80	64	170	7.822	.050*
		%	3.5%	11.8%	47.1%	37.6%	100%		
	여학생	빈도	6	14	128	63	211		
		%	2.8%	6.6%	60.7%	29.9%	100%		
	전체	빈도	12	34	208	127	381		
		%	3.1%	8.9%	54.6%	33.3%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5	11	79	43	138	6.064	.416
		%	3.6%	8.0%	57.2%	31.2%	100%		
	서귀포 시내	빈도	2	8	54	45	109		
		%	1.8%	7.3%	49.5%	41.3%	100%		
	그외 지역	빈도	5	15	75	38	133		
		%	3.8%	11.3%	56.4%	28.6%	100%		
	전체	빈도	12	34	208	126	380		
		%	3.2%	8.9%	54.7%	33.2%	100%		

<표 30>의 표현 기법을 알고 있는 정도를 보면 남학생에서 보통이다가 47.1%로 가장 높으며, 모른다가 37.6%, 잘 알고 있다가 11.8% 순이며, 여학생에서는 보통이다가 60.7%, 모른다가 29.9% 순이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7.822$ ,  $p<.05$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에 따라 표현 기법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보통이다가 57.2%로 가장 높고, 모른다가 31.2%, 서귀포 시내에서는 보통이다가 49.5%, 모른다가 41.3%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에서 보통이다가 56.4%, 모른다가 28.6%로 응답하여 지역에 따라 표현 기법에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화의 표현기법은 지역 및 화가들의 취향에 따라 각기 오랜 전통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으며 붓의 사용방법, 물의 양, 다양한 재료 사용 등에 의해 조금은 변화되며 이어지고 있다. 전통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리는 사람의 표현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이 생길 수 있음을 지도해야 한다.

<표 31> 민화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설문 26)

구분	내용	빈도	a_26				전체	$\chi^2$	p
			매우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른다			
성별	남학생	빈도	19	45	70	36	170	10.220	.017*
		%	11.2%	26.5%	41.2%	21.2%			
	여학생	빈도	12	57	114	28			
		%	5.7%	27.0%	54.0%	13.3%			
	전체	빈도	31	102	184	64			
		%	8.1%	26.8%	48.3%	16.8%			
지역	제주 시내	빈도	13	40	65	20	138	1.782	.939
		%	9.4%	29.0%	47.1%	14.5%			
	서귀포 시내	빈도	8	26	55	20			
		%	7.3%	23.9%	50.5%	18.3%			
	그외 지역	빈도	10	36	64	23			
		%	7.5%	27.1%	48.1%	17.3%			
	전체	빈도	31	102	184	63			
		%	8.2%	26.8%	48.4%	16.6%			

<표 31>의 민화 인지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통이다가 48.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성별의 반응을 보면, 남학생에서 보통이다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잘 알고 있다가 26.5%, 모른다가 21.2%,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1.2%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는 보통이다가 54.0%로 가장 높으며, 잘 알고 있다가 27.0%, 모른다가 13.3%로 응답하였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보통이다가 47.1%로 가장 높으며, 잘 알고 있다가 29.0%, 서귀포 시내에서는 보통이다가 50.5%로 가장 높고, 잘 알고 있다가 23.9%의 반응을 보였다. 그 외 지역에서 보통이다가 48.1%로 가장 높게, 잘 알고 있다가 27.1%, 모른다가 17.3%순이다.

민화에 대해 아는 정도는 다른 질문 비해 모른다는 답변의 빈도수가 낮게 반응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민화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술교과서나 수업시간 이외에도 인터넷, 길거리 벽화, 다른 교과서 예시작품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알고 있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조선시대 3원에 대한 인식여부(설문 27)

구분	내용	빈도	a_27		전체	$\chi^2$	p
			오답	정답			
성별	남학생	빈도	125	45	170	3.017	.082
		%	73.5%	26.5%	100%		
	여학생	빈도	137	73	210		
		%	65.2%	34.8%	100%		
	전체	빈도	262	118	380		
		%	68.9%	31.1%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115	23	138	25.707	.000 ***
		%	83.3%	16.7%	100%		
	서귀포 시내	빈도	74	34	108		
		%	68.5%	31.5%	100%		
	그외 지역	빈도	73	60	133		
		%	54.9%	45.1%	100%		
	전체	빈도	262	117	379		
		%	69.1%	30.9%	100%		

<표 32>의 조선시대 3원을 보면 남학생은 오답이 73.5%, 정답이 26.5%, 여학생은 정답이 34.8%, 오답이 65.2%로 응답하였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오답이 83.3%, 정답이 16.7%로, 서귀포 시내에서는 오답이 68.5%, 정답이 31.5%로 임을 알 수가 있다. 그 외 지역에서 오답이 54.9%로, 정답이 45.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조선시대 3원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시대 3원은 오원 장승업, 혜원 신윤복, 단원 김홍도이다. 신윤복이나 김홍도에 대해서는 교과서나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지고 있어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듯하나, 장승업에 관해서는 교과서에조차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없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 한국화 그리기 수업 시 곤란한 점(설문 28)

구분	내용	빈도	a_28				전체	$\chi^2$	p
			그리는 시간과 참고자료가 부족하다	그리는 방법 및 기법을 잘 모른다	재료의 사용법과 화선지의 성질을 잘 모른다	준비물 준비가 번거롭다			
성별	남학생	빈도	11	65	37	56	169	6.618	.085
		%	6.5%	38.5%	21.9%	33.1%			
	여학생	빈도	22	98	37	51			
		%	10.6%	47.1%	17.8%	24.5%			
	전체	빈도	33	163	74	107			
		%	8.8%	43.2%	19.6%	28.4%			
지역	제주 시내	빈도	11	73	21	32	11.669	.070	
		%	8.0%	53.3%	15.3%	23.4%			
	서귀포 시내	빈도	10	45	20	33			
		%	9.3%	41.7%	18.5%	30.6%			
	그외 지역	빈도	12	44	33	42			
		%	9.2%	33.6%	25.2%	32.1%			
	전체	빈도	33	162	74	107			
		%	8.8%	43.1%	19.7%	28.5%			

<표 33>의 한국화 수업 시 가장 곤란한 점을 보면 남학생은 그리는 방법 및 기법을 잘 모른다가 38.5%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으며, 준비물 준비가 번거롭다가 33.1%, 재료의 사용법과 화선지의 성질을 잘 모른다가 21.9%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에서는 그리는 방법 및 기법을 잘 모른다가 47.1%, 준비물 준비가 번거롭다가 24.5%, 재료의 사용법과 화선지의 성질을 잘 모른다가 17.8%, 그리는 시간과 참고자료가 부족하다가 10.6%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그리는 방법 및 기법을 잘 모른다가 53.3%로 가장 높고, 준비물 준비가 번거롭다가 23.4%이며, 서귀포 시내에서는 그리는 방법 및 기법을 잘 모른다가 41.7%로 가장 높게 반응을 보였고, 준비물 준비가 번거롭다가 30.6%로 조사되었다. 그 외 지역에서는 그리는 방법 및 기법을 잘 모른다가

33.6%로 가장 높으며, 준비물 준비가 번거롭다가 32.1%순으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화 수업 시 곤란한 점으로는 그리는 방법 및 기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표현기법과 재료의 사용 방법에 지도 부족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표 34> 한국화 그리기의 자신감(설문 29)

구분	내용	빈도	a_29				전체	$\chi^2$	p
			매우 자신 있다	조금 자신 있다	자신이 없다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	남학생	빈도	14	26	95	35	170	4.694	.196
		%	8.2%	15.3%	55.9%	20.6%	100%		
	여학생	빈도	8	30	117	56	211		
		%	3.8%	14.2%	55.5%	26.5%	100%		
	전체	빈도	22	56	212	91	381		
		%	5.8%	14.7%	55.6%	23.9%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7	21	76	34	138	6.466	.373
		%	5.1%	15.2%	55.1%	24.6%	100%		
	서귀포 시내	빈도	3	15	68	23	109		
		%	2.8%	13.8%	62.4%	21.1%	100%		
	그외 지역	빈도	12	20	67	34	133		
		%	9.0%	15.0%	50.4%	25.6%	100%		
	전체	빈도	22	56	211	91	380		
		%	5.8%	14.7%	55.5%	23.9%	100%		

<표 34>의 한국화 그리기의 자신감 정도를 보면 남학생에서 자신이 없다가 55.9%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가 20.6%, 조금 자신있다가 15.3%이며, 여학생에서는 자신이 없다가 55.5%,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가 26.5%, 조금 자신있다가 14.2% 순 조사되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제주 시내를 보면 자신이 없다가 55.1%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가 24.6%로 응답하였다. 서귀포 시내에

서는 자신이 없다가 62.4%로 가장 높으며,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가 21.1%로, 그 외 지역에서는 자신이 없다가 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가 25.6%임을 알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화 그리기의 자신감은 현재로서는 자신이 없지만 배우면 얼마든지 잘 할 자신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단순하고 형식적인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흥미있는 실기 지도로 자신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표 35> 한국화 그리기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설문 30)

구분	내용	빈도	a_30				전체	$\chi^2$	p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	화선지에 그리기 힘들어서	자주 접할 기회가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			
성별	남학생	빈도	49	20	64	35	168	14.97 1	.002 **
		%	29.2%	11.9%	38.1%	20.8%	100%		
	여학생	빈도	65	23	104	16	208		
		%	31.3%	11.1%	50.0%	7.7%	100%		
	전체	빈도	114	43	168	51	376		
		%	30.3%	11.4%	44.7%	13.6%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44	12	68	11	135	8.828	.183
		%	32.6%	8.9%	50.4%	8.1%	100%		
	서귀포 시내	빈도	35	14	42	17	108		
		%	32.4%	13.0%	38.9%	15.7%	100%		
	그외 지역	빈도	35	17	57	23	132		
		%	26.5%	12.9%	43.2%	17.4%	100%		
	전체	빈도	114	43	167	51	375		
		%	30.4%	11.5%	44.5%	13.6%	100%		

<표 35>의 자신감이 없는 이유를 보면 남학생에서 자주 접할 기회가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29.2%,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가 20.8%, 화선지에 그리기 힘들어서가 11.9% 순으로 응답하였다. 여학생에서는 자주 접할 기회가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가 50.0%로 가장 높으며,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31.3%, 화선지에 그리기 힘들어서가 11.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는 자주 접할 기회가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가 50.4%로 가장 높고,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32.6%이며, 서귀포 시내에서는 자주 접할 기회가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가 38.9%,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가 32.4%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한국화 그리기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로는 자주 접할 기회가 적고 익숙하지 않아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리는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한국화 그리기에 자신감을 갖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지, 필, 묵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한국화는 매우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통적인 기법을 중요시한다면 오히려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됨을 교사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다.

더불어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한 의식과 호기심을 가지고 전통 문양이나 민속놀이를 통한 한국화 활용도를 염두에 두어 지속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부채, T셔츠, 쿠션, 가방, 신발 등에도 전통회화를 그려 넣도록 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주 접할 기회를 제공 받는다면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 그리고 그리기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우리 것 속에서 새로움을 찾아보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전통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 후 외부에 것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길러 주어야 하겠다. 오늘날의 한국화 교육은 전통적인 재료와 방법은 물론, 그 위에 새로운 재료와 방법을 과감히 수용하여 창의성과 다양성을 지닌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표 36> 흥미향상을 위해 수업 시 선생님께 바라는 점(설문 31)

구분	내용	빈도	a_31				전체	$\chi^2$	p
			한국화 제작 순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	참고 작품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한다	전통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로 재미있는 수업이었던 한다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 학교에서 모두 구비해 주셨으면 한다			
성별	남학생	빈도	30	40	40	60	170	4.248	.236
		%	17.6%	23.5%	23.5%	35.3%	100%		
	여학생	빈도	44	56	57	54	211		
		%	20.9%	26.5%	27.0%	25.6%	100%		
	전체	빈도	74	96	97	114	381		
		%	19.4%	25.2%	25.5%	29.9%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29	34	37	38	138	4.558	.602
		%	21.0%	24.6%	26.8%	27.5%	100%		
	서귀포 시내	빈도	20	26	33	30	109		
		%	18.3%	23.9%	30.3%	27.5%	100%		
	그외 지역	빈도	24	36	27	46	133		
		%	18.0%	27.1%	20.3%	34.6%	100%		
	전체	빈도	73	96	97	114	380		
		%	19.2%	25.3%	25.5%	30.0%	100%		

<표 36>의 흥미 향상을 위해 선생님께 바라는 점을 보면 성별, 지역별 모두 준비물이 많고 복잡하여 학교에서 모두 구비해 주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30%로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에서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 학교에서 모두 구비해 주었으면 한다가 35.3%로 가장 높으며, 참고 작품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한다가 전통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로 재미있는 수업이었으면 한다가 각각 23.5%, 한국화 제작 순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가 17.6%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서는 전통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로 재미있는 수업이었으면 한다가 27.0%로 가장 높고, 참고 작품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한다가 26.5%,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 학교에서 모두 구비해 주었으면 한다가 25.6%, 한국화 제작 순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가 20.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에서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 학교에서 모두 구비해 주었으면 한다가 27.5%로 가장 높고, 전통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로 재미있는 수업이었으면 한다가 26.8%인 것을 알 수 있다. 서귀포 시내를 보면 전통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로 재미있는 수업이었으면 한다가 30.3%,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 학교에서 모두 구비해 주었으면 한다가 27.5%이고, 그 외 지역을 보면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 학교에서 모두 구비해 주었으면 한다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참고 작품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한다가 27.1%로 조사되었다.

흥미 향상을 위해 선생님께 바라는 점은 역시 한국화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용구를 학교에서 모두 구비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참고 작품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한도로 의견이 모아졌다. 준비물 때문에 한국화에 대한 흥미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참고 작품 및 참고 자료가 없는 미술수업은 시작부터 학생들을 소란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국화 실기 수업은 더욱 그렇기에 현대적 재료의 사용과 다양한 기법 활용으로 학생들이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지도방안 연구에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37> 효과적인 한국화 학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설문 32)

구분	내용	빈도	a_32				전체	$\chi^2$	p
			한국화 수업시간 확대	선생님의 체계적인 제작과정 지도	지도자료 및 다양한 참고작품 구비	실기재료 및 용구의 준비			
성별	남학생	빈도	32	51	41	46	170	.249	.969
		%	18.8%	30.0%	24.1%	27.1%	100%		
	여학생	빈도	36	64	54	57	211		
		%	17.1%	30.3%	25.6%	27.0%	100%		
	전체	빈도	68	115	95	103	381		
		%	17.8%	30.2%	24.9%	27.0%	100%		
지역	제주 시내	빈도	23	52	36	27	138	13.274	.039*
		%	16.7%	37.7%	26.1%	19.6%	100%		
	서귀포 시내	빈도	23	32	20	34	109		
		%	21.1%	29.4%	18.3%	31.2%	100%		
	그외 지역	빈도	21	31	39	42	133		
		%	15.8%	23.3%	29.3%	31.6%	100%		
	전체	빈도	67	115	95	103	380		
		%	17.6%	30.3%	25.0%	27.1%	100%		

<표 37>의 한국화 학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을 보면 남학생에서 선생님의 체계적인 실기 제작과정 지도가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기재료 및 용구의 준비가 27.1%로 다음으로 높게 응답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선생님의 체계적인 제작과정 지도가 30.3%로 가장 높고, 실기재료 및 용구의 준비가 27.0%, 지도자료 및 다양한 참고작품 구비가 25.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보면 제주 시내를 보면 선생님의 체계적인 실기 제작과정 지도가 37.7%로 가장 높으며, 서귀포 시내에서 실기 재료 및 용구의 준비가 31.2%, 그 외 지역에서는 실기재료 및 용구의 준비가 31.6%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 $\chi^2=13.274$ ,  $p<.05$ )으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 학습을 위해 학생들은 선생님의 체계적인 실기 제작과정과 기법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교사들은 끊임없는 다양한 연구와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3. 설문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화 수업의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학생들의 한국화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실시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 1) 교사용 설문지 분석 결과

설문지에 응한 미술교사의 숫자가 적은 관계로 교사의 의견은 학생들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쓰이는데 의의를 가진다.

##### (1) 응답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및 미술실 현황

설문지에 응한 교사 중 여교사 비율이 80%로 남교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지역은 그 외 지역이 40%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교육 경력은 21년 이상이 60%, 전공은 한국화가 55%로 제일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실기 수업은 주로 미술실에서 이루어지며 미술실 크기는 일반 교실 크기이고 한국화 실기 수업에 필요한 용구 중 보유하고 있는 것은 먹, 베틀, 모포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용구 준비 상태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수업의 실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교학사가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상시 한국화 지도에 있어서 교과서는 별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답이 50%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서 내의 체계적인 자료와 내용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미술수업에 있어서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는 서양화 50%, 디자인 25%, 한국화 20%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 미술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과정 속에서도 서양화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국화 수업이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사의 관심분야가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분야별 골고루 수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간 한국화 수업시간은 3-4시간 정도이며, 다른 영역에 비해 한국화 지도 시간

을 적게 할애한 이유로는 한국화 외 다른 영역에서 지도할 분량이 많아서가 65%의 반응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화 실기 지도 시 수묵담채화를 중요하게 지도하고 있고 직접 시범을 보이고 난 후 그리게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한국화 수업을 대체로 흥미 있어 하고, 한국화 관련 미술전시회는 1-2회 정도 추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4) 교사가 느끼는 학생들의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

한국화 교육과정이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60%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 때문이라는 응답이 70%로 가장 높게 반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현재 미술 교육이 서양 미술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 한국화의 인지도는 55%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5)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화 실기 수업이 어려운 이유는 과밀학급으로 한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학생 수가 많았다 45%, 실기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는 수업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부족과 학생들의 수업준비 상태의 미비로 45%의 반응이 가장 많아 실기 수업이 여건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적은 이유는 체계적인 지도 부족이 30%, 재료준비가 불편하다가 30%에 원인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바람직한 한국화 교수·학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도 자료와 시설 확충 및 실습 여건의 개선이 46.2%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보다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를 위해 연수 기회가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가 65%로 응답하고 있어 대부분의 교사는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향후 교과서가 다시 개편된다면 기초적인 표현 기법이나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해 주시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의 지도 능력 배양 및 지도 자료와 시설확충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학생용 설문지 분석 결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한국화 수업의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1)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에서 여학생이 55.4%, 남학생이 44.6%, 지역에서는 제주시 동지역이 36.2%로 가장 높게 설문에 응했으며, 서귀포 동지역이 28.6%, 서귀포 동부지역이 19.4%, 제주시 서부지역이 9.7%, 서귀포 서부지역이 4.2%, 제주시 동부 지역이 1.6% 순으로 조사되었다.

### (2) 미술 수업에 대한 흥미도 및 관심도

미술 수업에 대한 흥미도에서 보통이다가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 있다가 26.2%로 대체적으로 미술 수업은 흥미 있어 하고, 미술 영역 중에서 가장 관심과 흥미가 있는 영역은 디자인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화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없는 이유는 평소 한국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다가 35.2%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그 외에도 준비물이 많고 용구와 재료 사용법이 복잡하다가 26.0%,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흥미가 없다가 21.5%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미술 전시회 관람 횟수에서는 1-2번이 35.7%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그 중 한국화 관련 전시회 관람 횟수는 가 본적이 없다가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사용하기 간편한 용구와 재료 그리고 흥미 있는 표현 기법으로 자주 접할 기회를 주어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 (3) 한국화 수업의 실태

한국화 실기 수업은 주로 미술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술실에는 실기 수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기본적인 용구는 대체로 준비되어 있다가 61.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학생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산수화가 33.7%로 가장 많았다.

한국화의 제작과정을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67.9%, 실기 시간에는 주로 실기 대신 이론한다라는 반응이 39.5%로 가장 높았으며, 실기 수업은 교과서나 참고 작품을 보며 따라 그리고 있다라는 대답이 43.2%로 가장 많고, 한국화 실기 수업 시 준비물과 작품에 임하는 태도는 가끔씩 준비를 못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 하는 것에 48.1%으로 높게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한국화는 1-2회 그려 본 적이 있다에 43.7%로 가장 높고, 그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46.8%의 학생들이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며, 현재 교과서에서 한국화의 분량은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른다라는 의견이 36.9%로 가장 많았고 수업 시 교과서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그저 그렇다에 46%로 응답하였다.

#### (4)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

학생들이 실제 한국화 수업 내용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해 보았다. 한국화란 어떤 그림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55.0%, 그 외 한국화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을 아는 정도에 보통이다 54.0%, 농담 표현 방법을 아는지에 관한 질문에 보통이다 51.1%, 표현기법에 대한 아는 정도는 보통이다 54.7%, 민화란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도 보통이다가 48.4%의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3원에 대한 질문에는 정답이 30.9%에 불과하여 전통 미술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작품의 감상 교육과 폭넓은 이론 교육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겠다.

#### (5) 바람직한 한국화 학습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소 한국화에 대한 자신감은 없다 55.5%, 한국화에 대한 자신이 없는 이유로는 자주 접할 기회가 없고 익숙하지 않아가 44.5%로 가장 높게 답하였다.

한국화 그리기 수업 시 가장 곤란한 점으로는 그리는 방법과 기법을 잘 모르겠다가 43.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전통적인 기법의 바탕위에 현대적이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수업의 기회를 늘린다면 흥미와 자신감을 높여 한국화에 보다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IV.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 1.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

한국화 교육의 실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한국화를 평소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인지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을 교사와 학습 환경에 대한 문제점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교사에 의한 문제점

제주도내 미술교사들의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한국화 수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수업에서 한국화의 영역보다 서양미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연간 68시간의 미술수업 중 한국화 수업 시간을 3-4시간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적게 할애하고 있다.

셋째, 재료 준비가 용의하지 않으며 체계적인 실기 지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미술교사의 응답자 중에서 55%가 한국화를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에서는 한국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학습 환경에 대한 문제점

제주도내 한국화 수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얻은 학습 환경에 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학생 수가 너무 많다.

과밀한 학급에 따르는 한국화 실기 지도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었다. 한국화 수업의 특성상 한꺼번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개별적인 실기지도와 여러 종류의 준비물을 펼쳐 놓고 수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

을 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교구 및 시설 부족으로 한국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기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구 준비의 미비는 점차 개선되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충분한 여건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현재 교과서 내용이 부족하거나, 제작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교과서 활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한국화 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교사에 대한 문제보다 학습 환경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간구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국화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제주도내 미술교사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화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일제 수업이 아닌 개별지도와 여러 종류의 준비물을 펼쳐 놓고 실기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을 한 교사가 지도하기는 무리가 있다. 과밀 학급 해소로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보조 교사를 두어 실기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한국화 실기 수업에 필요한 용구 및 준비물 준비가 어렵고 불편함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교 실정에 맞는 실기 학습 공간을 넓혀 미술 준비실을 마련하고 한국화 실기 수업에 필요한 전문가용 재료를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필요한 수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준비물 준비 미비로 인하여 한국화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반감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 중 한국화 영역의 내용이 부족하여 교과서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교과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기초적인 표현 기법과 작품 제작 과정, 다양한 재료의 소개, 학생들이 이해하

기 쉬운 참고 작품 등 내용을 풍부하게 수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들에 의한 개선방안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양미술 중심의 미술수업을 탈피하여 한국화 수업 시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전공 교사는 한국화 실기 연수를 통하여 한국화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며,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재료와 용구의 선택과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 체계적인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화 지도 교사의 필수 요건은 한국화 도구 다루기와 재료의 특성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미술교사들은 형식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하여 내실있는 실제적인 실기 수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학교의 미술교육이 대학입시와 학력위주의 교육에 밀려 미술교과가 점차 소외되어 있는 지금, 미술 교사들은 연구하는 자세를 통하여 스스로 개발하려는 의지와 전통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연수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한국화 실기 수업 시 문제점으로 용구 사용 방법과 표현 기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선생님의 체계적인 지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학교에서 구비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위해 전통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한국화 실기에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자주 접할 기회가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화 관련 전시회 추천 횟수를 현재 1-2회에서 더 많이 늘려 관람기회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실기 수업 시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생활용품에 한국화 그림을 그리는 등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화 학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V. 결 론

오늘날 우리 미술교육이 전통회화의 특성을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채 서양미술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양적 발상과 시각으로 우리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모순을 보게 된다.

현행 중등미술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화교육은 우리의 전통 미술 문화에 대한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이를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있다. 이로 인해 한국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 이래 독창적인 기법과 미감으로 표현되어 온 전통적인 민족 회화의 한 분야이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밑거름으로 그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과 교육 부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한국화 교육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통 미술보다는 서양미술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적 가치를 발견하며 고유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한국화 인지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제주도내 2학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집·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째, 한국화 지도에 필요한 준비물 및 용구, 또는 미술 실기 준비실 등 제반 시설확충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서의 한국화 내용 중 기초적인 다양한 표현기법이나 표현양식, 제작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충분히 활용되게 내용을 선정하며, 현대의 다양한 재료와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 등을 수록하여 한국화 표현에 대한 확대된 사고와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한국화 영역 즉, 실기표현, 작품이해, 작품 감상 등으로 고르게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시회관람 및 박물관 견학 등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전통재료와 함



게 다양한 재료 활용으로 시각적, 공간적 조형체험이 가미된 한국화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수준에 알맞은 흥미있는 다양한 수업으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과밀한 학급의 해소를 통해 한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의 수를 줄여서 충분한 수업이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중등교사 임용 시 서양화 전공자와 한국화 전공자 비율을 고르게 임용하고, 비전공 교사에게 한국화 연수 기회를 확대하여 한국화 지도 시 자신감을 가지고 열의 있는 수업과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면회화는 조형 예술로써 대상의 감동과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초적인 표현기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다. 특히 독특한 기법과 양식을 필요로 하는 한국화는 특정 기간의 연수를 통해 기본을 익혀야 하는 것으로 교사 스스로 수묵화나 채색화의 기법을 터득하기란 어렵고 힘든 일이다.

한국화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을 단순히 모방이나 답습보다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정신과 전통적인 기법을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오늘의 감성과 감각을 살릴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찾아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전통 문화와 미술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한국화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표현의 특성과 현대적인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독특한 감성과 개성있는 감각을 키우고 우리 조상들의 소중한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고승혜 외(2009), 「중학교 3학년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V) 체육, 음악, 미술」.  
김동철(2006), 「N세대 미술교육」, 집문당.  
김삼량(1992), 「미술교육 개론」, 미진사.  
김재복(1994), 「미술과의 수업과 평가」, 일지사.  
김춘일(2010), 「중등미술교육론」, 교육과학사.  
김충식(2004), 「쉽고 재미있는 한국화 그리기」, 학지사.  
심문선(2002), 「수묵화 교실」, 미진사.  
이규선 외(2010),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임정, 이성도, 김황기(2006),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조용진(1996), 「동양화 읽는 법」, 집문당.  
조용진, 배재영(2008), 「동양화란 어떤 그림인가」, 열화당.

### <논문>

- 김미정(2008), “중학생의 한국화에 대한 교육 실태와 수업모형”,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민영(2000), “중학생의 한국화 인지도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진명(2008), “중학교 교과과정의 전통 미술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와 개선 방  
안” 석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혜경(2006), “중등미술교육에 있어 한국화 교육의 현황과 지도법연구” 석사학  
위 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손지원(2009), “표현기법을 활용한 한국화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지은(2003), “한국화 실기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주리(2009), “한국화 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도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현숙(2006),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윤영(2009), “중등미술교육에서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Perception of Korean Paintings in Middle School Art Education  
-Centering on Art Teachers and 2nd Graders of Middle Schools  
in Jeju Province as Objects of Research-

Oh Yeon-sun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of Fine Arts Education

Adviser Prof. Gang Dong-eon

Our traditional paintings are cultural legacy inherited and developed ingeniously from the old days. Inclusion and operation of the cultural legacy (left by our ancestors) in the fine arts curriculum of middle school will be worthwhile to try, as they will help the growing youths perceive the roots of our nation and people, and find self-identity as a part of the people. They can also provide a foothold upon which students can initiate to select and accommodate our culture, thus functioning as basis for students to grow up into internationalized manhood. Recently, however, rapid spread of internet makes the diverse characteristics in culture and art of the world fade away. Traditional paintings of Korea are also losing their unique features in the midst of globalization trend, which raises the need for reinforced efforts in order to preserve our traditional art.

But the reality we are situated is full of problems, such as (colleg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overcrowded classes, and shortage of teachers specialized in Korean paintings, and accordingly the traditional art education has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On the contrary, western art education has become the mainstream of today's fine arts instruction thanks to abundant education materials available and the ease in using them. Such lopsided educational trend has gradually deprived students of the opportunity to gain access to our traditional art, and as the result, students have come to perceive traditional paintings as something strange and difficult, leading to consequential loss of interests in Korean paintings.

At this juncture, it is required to improve instruction methods on Korean paintings

(which can help students realize the unique identity of Korea) in the way to make students foster familiarity with Korean paintings and approach them more easily. With the aim to seek such improvement methods, this study attempted to research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in Korean painting education, setting as objects the art teachers and 2nd graders of middle schools located in Jeju provinc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the following findings were identified as the situations and problems (in Korean painting education) felt by teachers. First, it was revealed that practical skill classes on Korean painting have not been operating properly due to shortage of teaching materials and facilities (which are required for classroom lessons) as well as students' lack of preparedness (45%) for class. Second, difficulty was ascertained in practical skill instruction as the number of students to be taken care by one teacher at class is too large (45%). Third, it was disclosed that most classes do not utilize textbooks due to their insufficiency in basic expression skills and lacking contents on specific production process.

The situations and problems felt by students appeared as follows. First, students have not been given adequate opportunity to gain access on Korean paintings, resulting in very low degree of curiosity and interest in Korean paintings (5.3%) compared with other sectors. Second, students feel they have not been given in-depth education on production process of Korean painting (67%), resulting in very low awareness of overall Korean paintings.

As a means to address such problems and thus to facilitate Korean painting education, while motivating students' concern and interest, it is required to institutionalize compulsory extension of supporting facilities, such as preparatory materials and kits (which are essential to Korean painting instru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include basic expression skills and production process more extensively in textbook so that teachers and students may utilize textbook actively. It would be also desirable to adopt diverse ultramodern materials along with traditional materials, so that students may attend classes with heightened curiosity. It is further required to arrange desirable environment by adjusting the number of students to be taken care by one teacher, so that adequate instruction on practical skills may proceed well.

I hope this study will function as an occasion to make students realize the excellence of our traditional culture and fine arts, while helping them to perceive the spirituality of Korean paintings and the background philosophy through classroom lessons using diverse

materials and techniques, and also enabling them to appreciate our traditional art more deeply, thereby contributing to students' awareness of the roots of our people as well as their finding the identity as Korean.

Furthermore, if we educate students in the way to widen their exposure to Korean art and facilitate their feeling sympathy with traditional art, the unique culture treasured by our people will be succeeded to future generations and developed further, and students will hopefully foster the mind and attitude of caring and enjoying our cultural works while appreciating their real value.

※ This paper is a thesis for master's degree in education, which was presented to evaluation committ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2011.



## 교사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에서 미술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한국화 인지도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교육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지도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선생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오연순 드림

### I. 선생님의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 무엇입니까?

- ① 남학생                      ② 여학생

2. 근무하시는 학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 ① 남학생중학교              ② 여학생중학교              ③ 남녀공학

3.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제주시 동지역                      ② 제주시 동부지역  
③ 제주시 서부지역                      ④ 서귀포시 동지역  
⑤ 서귀포시 동부지역                      ⑥ 서귀포시 서부지역

4. 교육 경력 몇 년 정도 되십니까?

-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⑥ 기타

5. 전공은 무엇입니까?

- ① 한국화              ② 서양화              ③ 조소              ④ 디자인              ⑤ 공예              ⑥ 기타



**II. 미술실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6. 미술 실기수업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미술실      ② 일반교실      ③ 기타 (            )
7. 미술실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일반교실 크기                      ② 일반교실 크기의 1배 반  
③ 일반교실 크기의 2배              ④ 미술실 없음
8. 한국화 실기 수업에 필요한 용구 중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귀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중복체크가능)  
① 붓              ② 베틀      ③ 먹(먹물)              ④ 화선지  
⑤ 모포              ⑥ 접시      ⑦ 충분히 비치된 용구가 없다
9. 한국화 실기 수업 시 학생들의 용구 준비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아주 양호하다      ② 보통이다      ③ 미비하다              ④ 아주 미비하다

**III. 교육과정에서의 한국화 수업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어느 것입니까?  
① 지학사(김용주 외)              ② 교학사(노영자 외)              ③ 두산(고승혜 외)  
④ 일진사(조중현 외)              ⑤ 기타(            )
11. 평상시 한국화 지도에 있어서 교과서의 활용도는?  
① 항상 활용한다                      ② 자주 활용한다  
③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④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12. 한국화 수업에 있어서 교과서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학생들 수준에 알맞지 않다  
② 제작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 ③ 작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④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13. 미술수업에 있어서 어느 분야에 더 비중을 두어 지도하십니까?  
 ① 한국화 ② 서양화 ③ 조소 ④ 디자인 ⑤ 공예 ⑥ 각 분야 골고루
14. 연간 한국화의 총 수업시간은 어느 정도 할애 하십니까?  
 ① 1-2시간 ② 3-4시간 ③ 5시간이상 ④ 계획에 없다
15. 만약 서양화와 비교하여 한국화 지도시간을 적게 할애하신다면 이유는 무엇  
 입니까?  
 ① 한국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② 한국화 외 다른 영역에서 지도할 분량이 많아서  
 ③ 서양화를 전공하였기 때문에(비전공자이어서)  
 ④ 한국화 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
16. 연간 한국화 수업시간 중 이론과 실기의 비중은?  
 ① 이론에 비중을 둔다 ② 실기에 비중을 둔다  
 ③ 이론 50% 실기50% ④ 여건상 실기지도를 못한다
17. 한국화의 실기 지도 시 가장 중요시하는 한국화의 종류는?  
 ① 사군자 ② 수묵화 ③ 수묵담채화 ④ 채색화 ⑤ 기타( )
18. 한국화 실기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① 교과서나 참고 자료를 보고 그리게 한다  
 ② 직접시범을 보이고 난 후 그리게 한다  
 ③ ICT를 활용하여 제작과정을 보고 난 후 그리게 한다  
 ④ 직접 풍경이나 정물을 보고 그리게 한다

19. 타 영역과 비교하여 한국화 실기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 ① 매우 흥미 있어 한다      ② 대체로 흥미 있어 한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흥미 없어 한다

20. 감상영역에 있어서 서양화와 비교하여 한국화의 비중은 어느 정도 두십니까?

- ① 50%이상    ② 30%이상    ③ 20%이상    ④ 10%이하

21. 교외 미술 전시회는 학생들에게 연간 몇 회 정도 추천해 주십니까?

- ① 1-2회    ② 3-4회    ③ 5회 이상    ④ 추천할 기회가 없다

22. (20번과 관련하여) 한국화관련 전시회는 연간 몇 번 정도 추천해 주십니까?

- ① 1-2회    ② 3-4회    ③ 5회 이상    ④ 추천할 기회가 없다

23. 귀교의 한국화 수업 운영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② 잘 운영되고 있다
- ③ 잘 운영되지 않는다      ④ 전혀 지도를 못하고 있다

**IV. 한국화 교육의 인지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24. 미술교과서 영역 중 한국화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하다
- ③ 그저 그렇다      ④ 중요하지 않다

25. 한국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의 바탕이기 때문에
- ②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 때문에
- ③ 청소년기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 ④ 다양한 재료사용으로 인한 창의성이 신장되기 때문에

26.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서양화에 비해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고 생각한다                      ② 비슷하다
- ③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④ 잘 모르겠다

27. 학생들이 서양화에 비해 한국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연간 한국화 수업시간의 부족
- ②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부족
- ③ 체계적인 한국화 지도부족
- ④ 서양미술 중심의 교육

**V. 한국화 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 질문입니다.**

28. 한국화 실기수업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한 교사가 지도해야 할 학생 수가 많다
- ② 한국화의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잘 모른다
- ③ 준비가 많고 복잡하다
- ④ 용구 및 재료 사용법이 어렵다

29. 한국화 실기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의 관심이나 기능부족(비전공자이어서)
- ②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 부족
- ③ 교과과정상의 지도시간이 부족
- ④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려서
- ⑤ 학교의 교구 및 설비부족과 학생들의 수업준비 상태 미비
- ⑥ 과밀학급으로 인한 실기수업의 어려움

30.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적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 ① 한국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 ② 체계적인 지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 ③ 한국화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 ④ 진학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 ⑤ 재료준비가 불편하기 때문에
- ⑥ 타 장르보다 시간배정이 적기 때문에

31. 바람직한 한국화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체크가능)

- ① 교사 연수를 통한 교사의 지도 능력 배양
- ② 지도 자료와 시설 확충 및 실습 여건의 개선
- ③ 한국화의 중요성이 확대되어 교과서내용 재편성
- ④ 현재보다 미술 수업시수의 증가
- ⑤ 주요 과목 중심의 교수·학습 분위기 탈피

32. 보다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를 위한 교사대상 한국화 연수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 ① 적극 참여 하겠다
- ② 유익하다면 참여 하겠다
- ③ 참여하지 않겠다

33. 향후 미술교과서가 다시 개편된다면 한국화 영역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화 이론과 실기에 대한 내용 분량 증가
- ② 더 많은 참고작품과 참고작품에 대한 해석보충
- ③ 기초적인 표현기법이나 제작과정 구체적으로 제시
- ④ 한국화 영역과 관련한 별도의 보조자료 제작보급

## 학생용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한국화(전통회화)수업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 설문 내용은 수업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는 것이니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성심껏 응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오연순 드림

### I. 학생 개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다니는 학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 ① 국 · 공립중학교      ② 사립중학교

3.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① 제주시 동지역(제주시내)      ② 제주시 동부지역  
③ 제주시 서부지역      ④ 서귀포시 동지역(서귀포시내)  
⑤ 서귀포시 동부지역      ⑥ 서귀포시 서부지역

### II. 흥미도 및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4. 다른 과목에 비해 미술수업에 대한 흥미가 있습니까?

- ① 매우 흥미 있다    ② 흥미 있다    ③ 보통이다    ④ 흥미 없다

5. 미술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이 흥미와 관심이 더 있습니까?

- ① 한국화    ② 서양화    ③ 조소(조각)    ④ 디자인(공예)    ⑤ 서예    ⑥ 감상

6.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평소 한국화에 대해 접할 기회가 적다
- ②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흥미가 없다
- ③ 준비물이 많고 용구와 재료 사용법이 복잡하다
- ④ 전통미술의 가치를 모르겠다

7. 지금까지 미술 전시회는 가 보셨습니까?

- ① 1-2번      ② 3-4번      ③ 5번 이상      ④ 가 본 적이 없다

8. (7번과 관련하여) 그 중 한국화관련 전시회는 몇 번 정도 보셨습니까?

- ① 1-2번      ② 3-4번      ③ 5번 이상      ④ 가 본 적이 없다

**Ⅲ. 한국화(전통회화) 수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9. 미술실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0. 미술실에는 한국화 실기수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기본적인 용구는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      ② 대체로 준비되어 있다
- ③ 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④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11. 한국화 영역 중 학생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사군자      ② 기명절지화(정물화)      ③ 산수화(풍경화)
- ④ 민화      ⑤ 이론 및 감상

12. 한국화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작과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13. 한국화 실기수업에서는 주로 어떤 종류를 배웠습니까?

- ① 수묵화      ② 수묵담채화      ③ 채색화      ④ 실기 대신 이론함

14. 한국화 실기수업을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배웠습니까?

- ① 교과서나 참고작품을 보며 따라 그렸다  
② 선생님의 제작과정 시범을 보고 나서 그렸다  
③ 인터넷과 방송매체를 통해 제작과정을 보고 나서 그렸다  
④ 직접 풍경이나 정물을 보면서 그렸다

15. 한국화 실기수업 시 준비물 준비상태와 작품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준비물을 전혀 준비해보지 않았고 작품제작에도 관심이 없다  
② 가끔씩 준비를 못할 때도 있지만 작품제작에는 열심히 한다  
③ 준비는 철저히 하지만 작품제작에는 자신이 없어 열심히 하지 않는다  
④ 준비물도 잘 챙기고 작품제작에도 최선을 다 한다

16. 지금까지 한국화를 그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5회 이상 그려보았다      ② 3-회 그려보았다  
③ 1-2회 그려보았다      ④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

17. (16번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한국화는 몇 번이나 그려 보았습니까?

- ① 5회 이상 그려보았다      ② 3-회 그려보았다  
③ 1-회 그려보았다      ④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

18.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한국화 수업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배워 볼 생각이 있습니까?

- ① 관심이 있어 꼭 배우고 싶다      ② 한 번쯤 배워 보고 싶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배우고 싶지 않다



19. 한국화 수업 중 실기와 이론 수업을 비교할 때 어느 수업이 재미있습니까?

- ① 이론 수업이 재미있다                      ② 실기 수업이 재미있다  
③ 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있다              ④ 이론과 실기 둘 다 재미없다

20. 현재 교과서 내용 중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한국화 영역의 분량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다                      ② 적당하다                      ③ 부족하다                      ④ 잘 모른다

21. 한국화 수업 시 교과서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움이 많이 된다                      ② 도움이 조금 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IV. 한국화(전통회화)의 인지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22. '한국화'는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23. 한국화의 재료와 용구의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24. 한국화 실기수업에서 먹과 물을 이용한 농담표현의 방법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25. 한국화의 표현 기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26. 민화란 어떤 그림인지 알고 있습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잘 알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모른다

27. 조선시대 한국화 작가 중 3원에 해당하지 않은 작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김홍도                      ② 신윤복                      ③ 장승업                      ④ 김득신

V. 바람직한 한국화(전통회화) 학습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8. 한국화 그리기 수업 시 가장 곤란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리는 시간과 참고자료가 부족하다  
② 그리는 방법 및 기법을 잘 모른다  
③ 재료의 사용법과 화선지의 성질을 잘 모른다  
④ 준비물 준비가 번거롭다

29. 평소 한국화 그리기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자신 있다  
② 조금 자신 있다  
③ 자신이 없다  
④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30. 한국화 그리기 수업을 한 후 자신감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그리는 방법을 몰라서  
② 화선지에 그리기 힘들어서  
③ 자주 접할 기회가 없고 익숙하지 않아서  
④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

31. 한국화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리기 수업 시 선생님께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한국화 제작 순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한다.  
② 참고 작품을 많이 보여 주고 그리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셨으면 한다.  
③ 전통재료와 함께 현대적인 다양한 재료로 재미있는 수업이었으면 한다.

④ 준비물이 많고 복잡해서 학교에서 모두 구비해 주었으면 한다.

32. 효과적인 한국화 학습을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화 수업시간 확대
- ② 선생님의 체계적인 제작과정 지도
- ③ 지도자료 및 다양한 참고작품 구비
- ④ 실기재료 및 용구의 준비